

# 강원메이트

## GANGWON MATE

山路海



## CONTENTS

10	설악산국립공원
14	오대산국립공원
18	치악산국립공원
22	태백산국립공원
26	춘천시 • 삼악산, 오봉산
29	원주시 • 김악산, 미륵산
32	홍천군 • 팔봉산, 가리산
35	횡성군 • 태기산, 어답산
38	영월군 • 백덕산, 태화산
41	평창군 • 계방산, 장암산
44	정선군 • 민동산, 가리왕산
47	태백시 • 힘백산, 백병산
50	강릉시 • 노주산, 고루포기산
53	동해시 • 두타산, 청옥산, 친음산
56	속초시 •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청대산
59	삼척시 • 덕항산: 육백산
62	양양군 • 정족산, 설악산 주전골
65	철원군 • 금학산, 복계산
68	화천군 • 용화산, 화악산
71	양구군 • 사명산, 대암산 솔봉
74	인제군 • 방태산, 곱배령 탐방
77	고성군 • 응봉, 마산
82	해파랑길
84	바우길
86	DMZ 평화의 길
87	춘천시 • 봄내길
88	원주시 • 금강소나무 숲길
89	홍천군 • 수타사 산소길
90	횡성군 • 횡성호수길
91	영월군 • 외씨바선길 영월 구간
92	평창군 • 호석문학 100리길
93	정선군 • 하이원 하늘길(운탄고도)
94	동해시 • 목호 논골담길
95	삼척시 • 오랑드리산소길
96	철원군 • 한여울길
97	화천군 • 비수구미 생태길
98	양구군 • DMZ편치볼둘레길
99	인제군 • 소양강둘레길
101	강릉시 해수욕장
102	동해시 해수욕장
103	속초시 해수욕장
104	삼척시 해수욕장
105	양양군 해수욕장
106	고성군 해수욕장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강원도 관광마케팅과  
작가 이승태(산)/진우석(길, 바다)  
사진 사람과 산/강원도 시군/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지도 (주)맵스토리  
디자인 주식회사 디그램 www.dgram.co.kr

# 강원메이트

강원도는 한반도의 축복이다.

산은 높고 계곡은 깊으며, 바다는 눈부시다.

국토의 등줄기를 이루는 장대한 백두대간이  
오대산과 설악산을 빙고, 용트림하며  
금강산으로 올라간다.

그 기세가 내륙 곳곳에 퍼져 풍광이 수려하다.

바다 역시 장쾌하다. 동해의 압도적인

스케일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

큰 파도를 타고 서핑과 카약 등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강원도는 봄·여름·가을·겨울 언제 방문해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출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강원도의 국립공원  
설악산 | 오대산  
치악산 | 태백산

한국 100대 명산 중 강원도가 보유한

명산 23곳

강원도가 보유한 유명한  
산 251곳

## 우리 몸에 스며드는 대 자연의 에너지!

강원도는 산의 고장이다. 국토의 등뼈인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중심축을 이룬 가운데 한북정맥과 한강기맥, 낙동정맥이 갈리지는 곳이 강원도다. 산의 격이 다르고, 그 품과 넓이가 장대하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네 곳의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내로라하는 수많은 산이 연이어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강원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풍광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자연과 하나가 된다

당신에게 강원도 걷기를 권한다. 배낭 하나 메고 길 위에 서면 '어떤 모  
험이 날 기다릴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콩닥콩닥 뛸 것이다. 길에서는  
자유가 흘러넘치고, 자유로움은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준다. 당신은 바  
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별이 되어 반짝인다. 강원도의 길을 걷고 나면  
당신은 새삼 놀랄 것이다. '우리 국토가 이토록 아름다웠나?'

부산 오륙도해맞이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770km

## 해파랑길

백두대간에서 경포와 정동진까지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길

## 바우길

철원, 고성의 비무장지대 길

## DMZ평화의길

路名

사진 : 대암산 용늪

## 당신의 뜨거운 가슴을 식혀줄 동해안 푸른 바다

동해 같은 곳이 또 있을까! 상상할 수 없이 깊고, 푸르다 못해 검은 기운  
마저 감도는 광활한 바다. 리아스식 해안의 서해와 달리 굽고, 강직하게  
뻗은 해안선은 강원도 사람의 심성을 닮았다. 맑고 푸른 동해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발길 닿는 항구마다 넘쳐나며, 서핑을 비롯해 수  
많은 해양스포츠 마니아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전국 최다 해수욕장 보유

92곳



海

# 설악산국립공원



## 걷고 있어도 그리운, 설악은 언제나 설악이다

설악산은 신의 예술작품에 비유되는 곳이다. 능선의 장엄함은 물론, 대청봉에 올라 바라보는 사방의 조망 또한 으뜸으로 꼽힌다. 북으로 향로봉과 금강산이 아스라하고 동으로는 바다가 질푸르다. 서남쪽으로 펼쳐진 기치창검(旗幟槍劍)의 산세는 가히 산 중의 산이 설악임을 느끼게 한다. 계곡마다 수십 길의 폭포와 물웅덩이가 줄을 잇고, 산굽이를 돌거나 능선에 올라설 때마다 펼쳐지는 기암괴석을 감상하는 것은 설악산 산행의 백미다.

내·외·남설악을 이으며 대청봉을 넘나드는 등산로는 숱하다. 가장 쉽다는 오색길을 비롯한 장수대 코스, 십이선녀탕계곡~서북 능선 코스, 백담계곡~수렴동계곡~가야동계곡, 백담계곡~마등령~공룡능선, 천불동계곡 코스, 비선대~마등령 코스가 대표적이다. 설악산 산행은 이런 등산로를 두 개씩 만든 조합의 하나를 택하고, 그 코스에 마땅한 채비를 갖추면 된다. 일정이 짧다면 오색약수에서 대청봉에 올랐다가 도로 내려서거나 천불동계곡으로 하산하는 것이 좋다. 설악산의 깊이까지 제대로 만끽하려면 십이선녀탕계곡이나 용대리의 백담사를 거쳐 외설악으로 넘어와야 한다. 십이선녀탕에서 서북릉을 지나 대청봉에 이르는 코스는 설악산의 특징이 가장 선명한 최상급 코스다.

● 속초시, 인제군 인제읍, 양양군 강현면, 고성군 토성면

☎ 033-801-0900 ☎ [www.knps.or.kr](http://www.knps.or.kr)

1,708m  
대청봉의 높이

398.237km<sup>2</sup>  
설악산의 면적

제 171호  
천연보호구역

UNESCO  
생물권보호구역

3~5/11~12월  
입산통제기간

## 대표 코스

### 천불동계곡 코스

15.3km 9시간 10분

비선대에서 희운각대피소까지 5.5km의 천불동계곡은 수려한 풍광으로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힘하기로도 악명이 높다. 소청봉과 중청봉을 지나 대청봉인 정상에 오른 후 오색약수로 내려서는 동안 설악산의 진면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 공룡능선 코스

18.4km 13시간 30분

마등령에서 희운각대피소에 이르는 5.1km의 공룡능선은 뾰족한 암봉들이 연이어지며 최고의 골격미를 자랑한다. 이후 대청봉에 올랐다가 천불동계곡이나 오색약수로 내려서는 게 일반적이며, 설악산을 대표하는 1박2일 종주코스다.



### 구곡담계곡 코스

12.9km 6시간 10분

백담사와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을 만날 수 있는 이 코스는 백담사계곡과 수렴동계곡, 구곡담계곡, 가야동계곡을 끼고 이어져 볼거리도 많다. 오세암이나 봉정암으로 오르는 구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길이 편하고 숲이 많아서 가족산행지로 제격이다.



### 산행 명소

#### 대승폭포

장수대에서 대승령 방향으로 0.9km 올라가면 88m의 낙차로 떨어져 내리는 대승폭포를 만난다. 대승령 주변의 물줄기가 모여 이룬 폭포로, 계곡 건너편의 폭포가 훤히 보이는 곳에 전망대가 있어 조망하기 좋다.

● 인제군 북면 한계리



#### 울산바위

30여 개의 바위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진 울산바위는 암벽 자체의 높이가 최고 200m로 북한산 인수봉과 비슷하고, 총 길이는 무려 2.8km에 달한다. 신흥사에서 흔들바위를 지나 울산바위의 전망대까지는 왕복 7.6km로 4시간쯤 걸린다.

● 속초시 설악산로 1091

#### 봉정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이다. 용아장성의 바위봉 바로 아래, 해발 1,244m 지점에 새 등지처럼 들어섰기에 주변 조망이 전국 최고로 꼽히는 절집이다. 찾아가는 길이 힘겹지만, 탐방객과 불자들의 순례 벌길이 끊이지 않는다.

●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033-632-5933

● [www.bongjeongam.or.kr](http://www.bongjeongam.or.kr)



#### 신흥사

백담사와 함께 설악산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여러 차례의 화재로 불탔지만 조선 선조 때 영서, 연옥, 혜원스님이 절 재건을 궁리하던 중 꿈속에서 똑같이 신선의 계시를 받고 자리 잡아 세운 절이 지금의 신흥사다. 높이 14.6m에 달하는 청동 통일대불이 눈길을 끈다.

● 속초시 설악산로 1137

● 033-636-7044 ● [www.sinheungsa.kr](http://www.sinheungsa.kr)



# 오대산국립공원



1,563m  
비로봉의 높이

326.348km<sup>2</sup>  
오대산의 면적

오대산 국립공원  
깃대종

길정박이  
올빼미

노랑무늬  
붓꽃

4개  
오대산 내 국보

3~5/11~12월  
입산통제기간

## 산 너울 치는 평창의 진산

오대산은 평창의 주산(主山)이다. 호령봉(1,561m), 비로봉(1,563m), 상왕봉(1,491m), 두로봉(1,422m), 동대산(1,433m) 다섯 개의 봉우리가 중심이 되며, 남쪽의 대관령, 북쪽 구룡령, 서쪽으로는 운두령과 동해에 이르는 품이 동서 20km, 남북 33km에 걸친 660km<sup>2</sup>의 광대한 지역이다. 정상인 오대산 비로봉에 오르면 평창과 주변의 산들이 너울 치듯 켜켜이 펼쳐진다. 평창이 가진 네 개의 국보(상원사 동종, 월정사 팔각구총탑, 상원사 문수동자상과 중창권선문)가 모두 오대산에 있다. 중대 사자암의 적멸보궁은 자장(慈藏)이 중국 당(唐)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를 나누어 봉안한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한 곳이다.

등산로는 상원사에서 비로봉을 거쳐 상왕봉, 북대 미륵암을 지나 다시 상원사로 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와 소금강 지역을 둘러보는 코스가 있다. 금강초롱을 비롯해 희귀한 꽃이 계절 따라 피어나기에 꽃 산행으로 인기다. 아름다운 계곡과 주변 산세가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는 소금강은 9km가 넘는 긴 계곡을 따라 절경이 이어져 여름 트레킹코스로 손꼽힌다.

● 평창군 진부면, 홍천군 내면, 강릉시 연곡면

☎ 033-332-6417 ☐ [www.knps.or.kr](http://www.knps.or.kr)



## 대표 코스

### 상원사 원점회귀 코스

13.2km 5시간 20분

비로봉을 중심으로 원점회귀하는 코스로, 오대산을 대표하는 산길이다. 상원사에서 적멸보궁을 지나 비로봉까지는 곧장 치고 오르기기에 가파른 편이지만 짧은 시간에 정상을 밟을 수 있다. 비로봉에서 미륵암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서면 왕복 3시간 30분이 걸린다.



### 상원사~동피골야영장 코스

19km 8시간 50분

오대천을 가운데 두고 부채꼴로 펼쳐진 오대산의 대표적인 산봉우리를 모두 오르내리는 코스로, 1,400m가 넘는 봉우리 7개를 지난다. 총 18km에 가까운 거리여서 물과 식량, 필요한 장비를 잘 갖춰야 한다. 오대산의 산세와 특징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 소금강 코스

13.2km 7시간 10분

오대산국립공원 최고의 경관을 간직한 코스로, 명승지 1호로 등록된 소금강을 따라 평坦한 길이 이어진다. 그러나 백운대에서 노인봉에 이르는 5.2km 구간은 경사가 급하고 바위 구간이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봉 바로 아래에 무인대피소가 있다.



### 산행 명소



### 한국자생식물원

환경부가 지정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식물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자생식물을 수집·보전·전시·연구하고 있다. 식물원 한쪽에는 북카페 '비인'이 있어서 우리 식물을 둘러보고 책도 읽으며 힐링을 즐길 수 있다.

평창군 대관령면 비안길 159-4  
033-332-7069  
[www.kbotanic.co.kr](http://www.kbotanic.co.kr)

###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

일주문에서 월정사까지 800m 정도 이어지는 전나무 숲길이다. 아름다운 계곡과 어우러지며 하늘을 찌를 듯이 자란 아름드리 전나무가 늘어서는 숲길은 원래 월정사로 들어서던 진입로였다. 지금은 오대천 양쪽을 이으며 1.9km의 무장애 탐방로가 조성되었다.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50-1



### 월정사

해발 1,000m대의 고산초원에 방목하는 양떼를 볼 수 있는 목장으로, 강릉방향 구 대관령휴게소 뒤편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있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촬영지며, 양에게 먹이를 주거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인생사진을 남기기에도 좋다.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033-335-1966  
[www.yangtte.co.kr](http://www.yangtte.co.kr)



# 치악산국립공원



## 병풍을 세운 듯 펼쳐진 험난한 산세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에 걸쳐 남북으로 길게 산줄기를 펼치고 있는 치악산은 예로부터 이름난 명산이다. 조선시대 오악(五岳) 중 동악명산(東岳名山)으로 손꼽힐 만큼 험준한 치악산은 긴 능선을 따라 여러 고봉을 거느렸다. 정상인 비로봉(1,288m)을 비롯해 시명봉(1,196m), 남대봉(1,181m), 천지봉(1,086m), 매화산(1,084m), 향로봉(1,043m), 삼봉(1,072.6m), 투구봉(1,002m) 같은 천 미터가 넘는 봉우리가 이어지며 드넓은 산세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육산이지만 비로봉에서 북쪽으로 발달한 사다리병창이나 상원골, 영원사계곡, 보문사계곡 등 바위산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국립공원답게 등산로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그중에서도 구룡사에서 큰골을 따라 세령폭포 갈림길까지 간 후, 사다리병창이나 계곡을 거쳐 비로봉을 오르내리는 코스가 가장 인기다. 치악산을 찾는 탐방객 중에서 90% 이상이 이 코스로 드나들지만, 치악산 등산로 중에서 가장 험난하고 가파른 곳이기도 하다.

이 외에 비로봉에서 향로봉, 남대봉을 거친 후 성남리나 금대리로 내려서는 종주코스가 있으며, 능선 중간마다 부곡리나 황골, 행구동, 국형사 등으로 하산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일정과 체력에 맞게 코스를 조절할 수 있다. 능선에 샘이 없기에 미리 식수를 준비해야 한다.

• 원주시 소초면·판부면·신림면, 횡성군 안흥면·우천면·강림면

• 033-740-9900 [www.knps.or.kr](http://www.knps.or.kr)

1,288m  
비로봉의 높이

175.668km<sup>2</sup>  
치악산의 면적

치악산 국립공원 깃대종  
물두꺼비  
금강초롱꽃

9개  
치악산 내 문화재

3~5/11~12월  
입산통제기간

## 대표 코스

### 치악산 종주 코스

21.5km 10시간 20분

치악산의 능선미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연 이어져 있는 고산지대로, 숲길을 걷는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21km 정도의 긴 코스에 대피소가 없는 구간이라 사벽부터 서둘러야 하루만에 산행을 마칠 수 있다. 장거리인 만큼 체력을 확보한 후 산행을 계획하기 바란다.



### 구룡사~황골 코스

10.1km 4시간 30분

치악산 등산로 중 비로봉을 거치는 가장 짧은 코스이다. 산행 시간이 비교적 짧지만, 능선과 계곡을 두루 아우르는 코스라 산행에 즐거움이 있다.



### 남대봉 코스

11.1km 4시간 35분

금대에코힐링야영장과 자연관찰로가 조성된 금대분소에서 영원사계곡을 따라 남대봉을 거쳐 상원사를 들러 성남리로 하산하는 일반적인 코스다. 원주시내에서 가깝고 비교적 짧은 코스라 가족산행으로 추천한다.



### 산행 명소



#### 구룡사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구룡사는 원주 지역의 대표 사찰로, 진입로를 뒤덮은 오래된 숲이 매력적이다. 덕분에 사찰로 들어서는 동안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다. 창건 후 중수를 거듭느느라 경내에 눈에 띄는 건물은 없으나 대웅전의 단집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다.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500

033-732-4800

[www.guryongsa.or.kr](http://www.guryongsa.or.kr)

#### 국형사와 동악단

국형사(國亨寺)에는 산신각에 해당하는 '동악단(東岳壇)'이라는 전각이 눈길을 끈다. 동악단을 모신 이곳은 조선의 오악 단 중 한 곳으로, 지금도 해마다 산신대제를 올리고, 매년 가을에는 제를 지낸으로써 '강원감영문화제'(옛 치악제)의 시작을 알린다. 치악산 둘레길 중 무장애길(꽃밭머리길)이 동악단까지 이어진다.

원주시 고문골길 155 국형사

033-747-1815



#### 구룡소

구룡사 안쪽 구룡계곡에 있는 물웅덩이로, 의상대사가 사찰을 짓기 위해 아홉 마리의 용을 쫓아낼 때 미처 피하지 못한 한 마리의 용이 살던 곳이라 전한다. 사계절 맑은 물이 소용돌이치는 곳으로, 치악산의 계곡미를 잘 보여준다.



#### 황장금표 바위

구룡사 둘마리의 길가에 '황장금표(黃腸禁標)'라고 음각된 바위가 있다. 황장금표는 조선 시대에 이 일대에서의 무단 벌목을 금한다는 방으로, 이 계곡 일대가 궁궐이나 관청에서 쓰는 질 좋은 소나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09

# 태백산국립공원



## 우리나라 눈꽃산행 1번지

우리나라 대표 눈꽃산행지로 통하는 태백산은 천재단이 있는 영봉을 중심으로 북쪽에 정상인 장군봉이 드넓하게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문수봉과 부쇠봉 등이 이어져 명산의 기운을 뿜낸다.

2016년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북쪽 화방재 너머로 만항재와 주목군락지로 유명한 함백산, 우리나라 최고의 고산 야생화군락지로 꼽히는 금대봉, 대덕산까지 포함하여 덩치가 크게 불어났다. 한강의 발원지 중 한 곳인 견룡소와 열목어 서식지인 백천계곡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빼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한다. 태백산은 정상부 주목군락지의 설경이 아름답고 조망이 훤히 트여 신년 일출산행과 겨울 눈꽃산행지의 최고봉이다. 그 때문에 눈 소식이 있을 때면 수많은 사진기가 몰린다. 당골광장에서 천재단에 올랐다가 유일사로 내려서거나 반대 코스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정상에서 문수봉으로 능선을 이어가는 코스도 인기다.

1천여 종의 식물류가 자생하는 대덕산·금대봉은 봄이면 야생화군락지로 '천상의 화원'을 이루며 탐방 예약제로 운영된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구간이 없고, 길이 않아 부담 없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화방재 북쪽의 함백산은 독립된 산행지로 통한다.

• 태백시 소도동

☎ 033-550-0000 [www.knps.or.kr](http://www.knps.or.kr)

1,567m  
장군봉의 높이

70.052km<sup>2</sup>  
태백산의 면적

태백산 국립공원 깃대총  
열목어  
주목

3개  
태백산 내 문화재  
입산통제기간

3~5/11~12월  
입산통제기간

## 대표 코스

### 유일사 코스

7.9km 4시간 20분

눈꽃산행이나 일출산행 등 태백산을 찾는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다. 경사가 완만해서 누구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장군봉과 주목군락지, 천제단 등 태백산만의 명소를 두루 만나게 된다.



### 문수봉 코스

10.7km 5시간 15분

태백산의 동쪽 맹주인 문수봉은 1,517m로, 정상부가 바위로 이뤄진 독특한 풍광을 가졌다. 당골을 출발해 산제당골로 접어들면 거친 돌과 풀이 뒤섞인 길이 이어진다. 중간에 작은 계곡도 만난다. 소문수봉에 오른 후부터는 장군봉까지 능선길을 따른다. 태백산의 대표적인 모든 산봉우리를 대부분 거치는 코스다.



### 금대봉 코스

10.6km 5시간 5분

금대봉~대덕산을 잇는 지역은 우리나라 고산의 희귀한 야생화가 피고 지는 천상의 화원이다. 탐방일 3일 전까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https://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예약하고 두문동재 초소에서 명찰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매년 4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운영하며, 1인 최대 10명까지 예약 가능하다.



### 산행 명소



#### 태백산 천제단

태백산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제천의식이 치러지던 곳이다. 천왕단을 중심으로 북쪽 300m쯤 떨어진 곳에 장군단이, 그 남쪽 아래에 이름 없는 제단이 북에서 남으로 일직선 위에 배열되어 있다. 지금도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며, 개천절이면 여기서 하늘에 제를 지내고 국태민안을 기원한다. 또 매년 열리는 강원도민체전의 성화 채화도 이곳에서 한다.

태백시 협동



#### 태백석탄박물관

1997년에 정부의 광산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개관한 박물관이다. 우리나라 산업화시대의 중요한 연료였던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던 태백 석탄 산업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산행 들머리인 당골 광장 입구에 있어서 이용이 편하다.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95

033-552-7720

[www.taebaek.go.kr](http://www.taebaek.go.kr)

#### 검룡소

태백산국립공원 최북단인 대덕산과 금대봉 사이에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가 있다. 매일같이 2,000톤이 넘는 맑은 물을 폭포처럼 쏟아낸다. 긴 세월 흘러내린 물줄기로 인해 소 아래의 바위는 마치 용이 지나간 듯 구불구불하다.

033-550-0000

#### 황지연못

태백 시내 중심에 있는 황지연못은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다. 둘레가 100m나 되는 상지와 중지, 하지로 구분되며, 매일 연못에서 하루 5천 톤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 옛날 이곳이 황부자라는 사람의 집터였는데, 탁발하려 나온 노승에게 시주 대신 쇠똥을 퍼 주는 등 악행으로 망한 곳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태백시 황지연못길 12





## 춘천시 • 삼악산

풍광 좋은 강원 대표 약산

강촌유원지와 의암호 사이에 걸친 삼악산은 산이 많은 강원도에서도 손꼽힐 만큼 험하다. 등선봉(632m)과 청운봉(546m), 용화봉(654m)이 이어진 산군을 '삼악산'이라 부르는데, 날카로운 바위로 뒤덮인 세 봉 우리는 경사도 가팔라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삼악산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은 의암매표소를 출발해 세 봉우리 중 정상인 용화봉만 오르내리거나 이웃한 청운봉과 등선폭포를 엮어 산행한다. '삼악산 종주'는 옛 강촌역 건너편의 육교에서 시작, 세 봉우리를 모두 거친 후 의암매표소(상원사 입구) 또는 동천사로 내려서거나 그 반대 방향을 택하면 된다. 경춘선을 이용할 경우 강촌육교 쪽으로 시작하는 게 편하다. 종주 총 거리가 7.6km에 불과하지만, 시간은 5시간 이상 잡아야 한다. 등산로에 샘이 없어서 물을 넉넉히 준비해야 하며 초행일 경우 경험자와 동행하는 걸 추천한다.

654m  
삼악산 높이  
▲

● 춘천시 서면, 남산면 ● 033-262-2215



### 삼악산 종주 코스

7.6km 5시간

삼악산의 위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코스. 산세가 험하고 산행이 힘든 구간이다. 물과 먹을 것을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 등선폭포~동천사 코스

3.9km 2시간 20분

계곡을 따라 시원한 폭포와 산사가 어우러지고, 정상에서의 조망까지 감상할 수 있는 삼악산 핵심 등산로다. 가족산행지로 좋다.



### 산행 명소

#### 강촌유원지

대학생, 앤티, 자전거로 기억되는 강촌유원지는 7080세대에겐 청춘 여행지였다. 북한강과 어우러진 풍광에 기차여행의 낭만까지 즐길 수 있다. 구곡폭포와 등선폭포가 멀지 않고, 강변 산책도 빼놓을 수 없다.

●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34  
● 033-250-4312 ● tour.chuncheon.go.kr



#### 의암호

춘천은 의암호로 인하여 '호반의 도시'가 되었다. 인공호인 의암호는 삼악산과 중도, 봉어섬 등이 어우러져 자연호수의 느낌으로 가득하다. 12m 높이의 의암 스카이워크를 걷는 짜릿한 경험도 놓칠 수 없다.

● 춘천시 신동면 옛 경춘로 ● 033-250-4312





## 주변 산행

### 오봉산 $\Delta$ 779m 춘천시 북산면, 화천군 간동면

제1봉 나한봉부터 제5봉이자 정상인 비로봉까지 이어진 다섯 개의 바위 봉우리를 따라 오르는 산이다. 암릉을 걷는 내내 남쪽 소양호와 북쪽 파로호의 조망이 눈을 즐겁게 한다. 오봉산을 찾는 많은 이들이 교통이 편리한 배후령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이후 오봉을 올랐다가 소양호 안쪽 골짜기에 들어선 청평사로 내려서는 게 일반적이다. 보물 제164호인 회전문과 아홉 가지 소리를 낸다는 구성폭포로 유명한 청평사는 오봉산과 어우러져 풍광이 아름답다. 청평사 관광지구에서 소양호의 유람선을 타는 것도 오봉산 산행의 매력이다.

### 캠핑장



####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글램핑장 앞으로 푸른 의암호가 흐르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며 글램핑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주변에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도 있다.

춘천시 서면 박사로 770 ☎ 033-240-1791  
www.anitowncampgrounds.com

### 레저체험



#### 물레길 카누 체험

직접 카누를 조종해 의암호를 둘러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초보자도 가능하다. 물안개 피는 이른 아침이나 노을 지는 저녁 시간대의 카누 이용을 추천한다. 스카이워크 길, 봉어섬 물풀숲 길, 중도 샛길 코스로 운영 중이다.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13-1 ☎ 033-242-8463  
www.mullegil.org



## 원주시 • 감악산

### 강원 남단을 호령하는 매서운 산세

945m  
감악산 높이

치악산국립공원 남쪽에 위치한 감악산(945m)은 원주시 신림면과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경계를 이룬다. 남쪽 청천 방면은 비교적 완만한 육산의 흐름이지만 북쪽인 원주는 바위 절벽이 늘어선 골산의 느낌을 주며 풍광도 수려하다. 창촌리 창촌교와 재사동이 감악산 산행 들머리로 애용된다. 황둔천을 건너면 감바위골을 따라 감악고개로 오르는 계곡길과 왼쪽으로 감악 1·2·3봉을 거치는 능선길이 나뉜다. 재사동의 재사골을 따라 재사골재에 올라 오른쪽 능선을 이어기도 된다. 정상부는 '월출암', '일출암'으로 불리는, 주변의 바위 봉우리가 멋진 전망대 역할을 한다. 암봉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능선 곳곳에서는 조망이 트이는 곳이 많아서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능선을 따라 삼국시대에 쌓은 것으로 알려진 감악산성 흔적이 가끔씩 나타나고, 월출봉 아래의 천년고찰 백련사는 4m 높이의 지그재그로 쌓은 축대가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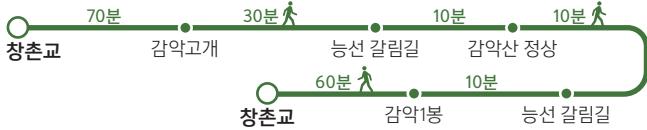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 033-742-4687



### 괌바위골 코스

6.1km 3시간 10분

울창한 숲에 뒤덮인 괌바위골을 타고 괌악고개까지 오른 후 괌악산성을 따라 정상으로 가거나 괌악1·2·3봉이 이어지는 능선을 거쳐 정상까지 간다.



### 재사골 코스

10.9km 4시간 50분

감악산 종주 코스다. 재사골에서 감악산 정상으로 이어진 능선이 꽤 가파른 경사여서 체력 안배를 잘해야 한다. 정상부는 바위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 산행 명소

#### 간현 관광지

섬강이 굽어 도는 백사장 건너편으로 40~50m 높이의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여름철 물놀이는 물론, 야영도 가능해 가족 단위로 찾는 이가 많다.

④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12 ☎ 033-731-4088



####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길이 200m, 높이 100m로 우리나라 산악 보도교 중 최장, 최고를 자랑하는 소금산 출렁다리는 공중을 걷는 듯 아찔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발아래로 기암과 어우러진 푸른 섬강이 흐른다.

④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12 ☎ 033-731-4088 ☐ ganhyeon.wonju.go.kr

### 주변 산행

미륵산 △ 689m ④ 원주시 귀래면 ☎ 033-737-5123

원주시 남쪽, 충주시 소태면과의 경계에 있는 미륵산은 멋들어진 바위 봉우리 12개와 아름드리 소나무가 조화를 이루며 한 폭의 동양화를 보듯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정상인 신선대에 서면 백운산과 치악산의 거대한 산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남서쪽으로 남한강도 조망될 만큼 시야가 확 트인다. 정상 바로 아래의 바위엔 산 이름처럼 거대한 미륵불이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끈다. 황산골과 운계리, 주포리가 들머리로 애용되며, 그다지 높진 않지만 부드러운 산길과 야기자기한 바윗길이 어우러져 산행의 묘미를 더한다. 정상 동쪽 능선의 신라 고찰 황산사도 둘러볼 만하다.

### 캠핑장



#### 금대에코힐링캠핑장

원주 시내에서 15분이면 닿는 편리한 접근성을 가진 금대에코힐링캠핑장은 사이트마다 활엽수가 숲 그늘을 제공한다. 야영장 바로 옆에 수량이 풍부한 영원사 계곡이 있고, 영원사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호젓하게 걷기 좋다.

④ 원주시 판부면 영원산성길 372 ☎ 033-763-5232 ☐ reservation.knps.or.kr

### 레저체험



#### 원주레일파크

중앙선이 지나던 판대역과 간현역 사이 7.8km의 철로를 활용한 원주레일바이크는 풍경열차로 판대역까지 간 레일바이크를 타고 간현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판대천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며 달린다.

④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63 ☎ 033-733-6600



## 홍천군 • 팔봉산 홍천강이 휘감은 여덟 암봉

산림청 100대 명산 중 가장 낮은 산이다. 그러나 올라보면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여덟 개의 봉우리가 모두 바위로 이뤄져 능선은 톱날처럼 역동적이다. 산수화를 보는 듯 멋지고 용골찬 산세가 수려하고, 물맑은 홍천강이 산자락을 휘감고 흘러 정상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무척 아름답다. 이로 인해 팔봉산은 예부터 '소금강'이라 불렸다. 거친 암릉 구간이 이어져 산행이 만만치 않지만, 등산로를 따라 안전시설물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초보자도 암릉을 무난히 오르내릴 수 있다. 여덟 개의 바위 봉우리를 거친 후 산행을 마치기까지 약 3시간이면 충분할 만큼 코스도 짧다. 들머리를 기점으로 원점회귀형 산행이 일반적이고, 정식 등산로가 한 코스뿐이어서 길 찾기도 쉽다. 8봉 하산 후 홍천강 강변을 지나는 벼랑길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329m  
팔봉산 높이  
▲

● 홍천군 서면 팔봉리 ☎ 033-434-0813



### 팔봉산 종주 코스

⌚ 2.9km ⏳ 2시간 55분

1봉과 2봉 사이의 새목으로 오르는 길이 약간 가파르다. 당집이 있는 새목에서 1봉을 다녀온 후 2봉을 건너뛰고 정상인 3봉에 오르게 된다. 이후 이어지는 7봉까지 갔다가 조금 까다로운 8봉도 오르거나 건너뛰고 홍천강으로 내려선다.



### 산행 명소

#### 해산굴(산부인과 바위)

팔봉산 제4봉 직전의 바위 구멍. 이곳을 지나야 4봉에 오를 수 있다. 통과하는 모양새가 산모가 아이를 낳는 듯해서 '해산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러 번 통과하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어서 '장수굴'로도 불린다.



#### 대명비발디파크

팔봉산에서 4km 거리에 있는 비발디파크는 겨울이면 스키어들의 성지가 되고 여름엔 오션월드에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가족 단위 휴식에 안성맞춤이며, 짐질방 존은 산행의 피로를 풀기에 좋다.



●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1588-4888 ☎ [www.sonohotelsresorts.com](http://www.sonohotelsresorts.com)



## 주변 산행

**가리산** ⚫ 1,051m ⚫ 홍천군 화촌면, 두촌면 ☎ 033-340-2471

산 이름에 붙은 '가리'는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떨나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둔 큰 더미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산봉우리가 곡식의 단처럼 생긴 데서 유래한다. 제1봉 남쪽의 산은 홍천강의 발원지기도 하다. 여기서 출발한 물줄기가 홍천 땅을 구불구불 지나며 143km를 달려 청평호로 흘러드는 것이다. 가리산은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조망 명산이다. 정상에 서면 북쪽으로 소양호와 용화산, 동쪽으로 설악산과 방태산, 오대산이 멋진 산세를 펼친다. 서쪽으로는 연인산과 축령산이, 남쪽으로는 치악산도 가능된다. 봄이면 온 산이 진달래로 덮여 많은 이들이 찾는다.

### 자연휴양림



#### 가리산자연휴양림

해발 550m에 위치한 탓에 여름에도 시원해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 휴양림 안쪽의 '작은장구실골짜기'와 '큰장구실골짜기'에 3개의 폭포가 걸려있고, 이 길을 따라 가리산 정상까지 다녀오는 산길이 이어진다.

☎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426  
☏ 033-435-6034 ☐ www.foresttrip.go.kr

### 레저체험



#### 가리산레포츠파크

공중에서 나무 사이를 건너다니는 포레스트어드벤처, 탑승자의 무게와 낙차만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플라잉짚, 경찰과 군의 훈련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된 서바이벌 체험까지 신개념 친환경레저를 즐길 수 있다.

☎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426  
☏ 070-8831-8138 ☐ leports.great.go.kr



## 횡성군 • 태기산

높고 너른 품 가진 횡성 최고봉

횡성군에서 가장 높은 태기산은 횡성과 평창을 가르며 품을 펼쳤다. 6번 국도가 지나는 양구두미재에서 태기산 정상부로 침길이 이어진다. 사륜구동차량이라면 눈 내린 날에도 정상부까지 오를 수 있어서 겨울철 눈꽃을 보려는 이들이 즐겨 찾는다. 또 정상부의 확 트인 조망 때문에 백패킹 명소로 알려지며 백팩커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상에서 북쪽으로 완만히 뻗어간 능선을 따라 늘어선 풍력발전기가 이국적인 풍광을 연출한다. 삼한시대 진한의 태기왕이 신라군에 대항해 싸웠다는 태기산성 흔적과 화전민을 위해 세운 태기분교 터도 볼 수 있다. 양구두미재에서 산행을 시작한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정상부에 닿는다. 서쪽 신대리에서 깊숙이 들어선 성골의 송덕사에서도 오를 수도 있다. 길은 이정표를 만나며 곧 두 갈래로 나뉘는데, 왼쪽이 태기산성과 태기분교 터를 지난다. 두 길은 정상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만나 연결되기에 두 길을 통한 원점회귀 산행이 가능하다.

1,261m  
태기산 높이

☎ 횡성군 청일면, 둔내면 ☎ 033-340-2415



### ❶ 신대리 원점회귀 코스

⌚ 14.5km ⓘ 6시간 20분

태기산성과 태기분교 터 등 태기산이 품은 역사의 현장을 두루 거치는 코스다. 등산로가 잘 나 있는 편이지만, 눈이 쌓인 날이면 길찾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 ❷ 양구두미재~신대리 코스

⌚ 12km ⓘ 4시간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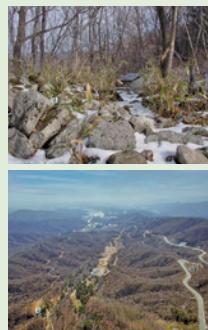
태기산을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로, 길이 완만하고 편하다. 태기산 정상부에서 하룻밤 야영을 하려는 백파커들이 많이 이용한다.



### ❸ 산행 명소

#### 태기산성

태기산성은 옛날 진한의 태기왕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에게 쫓겨 태기산에 들어와 성을 쌓고 방어했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산성이다. 성벽 흔적은 해발 750m~1,000m 사이 능선을 따라 이어진다.



#### Eco 800 태기산 트레킹로

둔내면 삽교3리에서 숲체원에 이르는 16km의 테마임도를 활용한 트레킹·산악자전거 코스다. 자연친화적 고원 임도로, 해발 800m 지대의 절경이 색다른 풍광으로 펼쳐진다.

⌚ 033-340-2403

### 주변 산행

어답산 ⚫ 789m ⓘ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 033-340-2415

어답산은 태기산과 마찬가지로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과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얹힌 전설을 품은 곳이다. 삼한 중에서 가장 부강했던 진한의 태기왕은 신라와의 전투에서 패한 후 병사들과 함께 덕고산(지금의 태기산)으로 가던 중 이 산에 올랐기에 '어답산(御踏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산길은 대체로 계단과 바위 구간이 많고, 오르내리는 내내 숲에 가려 조망이 시원치 못하다. 그러나 능선 곳곳에서 만나는 소나무가 멋지고, 깎아지를 바위인 낙수대에 오르면 내려다보는 횡성호와 삼거저수지가 절경이다.



#### ❹ 캠핑장



#### 병지방 오토 캠핑장

청정한 병지방계곡의 상류에 있으며, 119면의 캠핑사이트를 갖춘 대형 캠핑장이다.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가족단위 캠퍼들에게 인기다.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병지방계곡은 온갖 야생화로 풍광이 아름답다.

⌚ 횡성군 갑천면 어답산로 516  
☎ 033-343-7639 🌐 www.bingjibangotocamping.kr

#### ❺ 레저체험



#### 횡성 루지 체험장

단일코스로는 세계 최장인 2.4km다. 국도 42호선의 기존 도로와 숲을 그대로 이용해 친환경적이며, 여섯 개의 테마구간이 나타나며 다이나믹하다.

⌚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 033-342-5503 🌐 luge.hsg.go.kr



## 영월군 • 백덕산 겨울이 제격인 조망 명산

영월과 평창의 경계를 따라 넓은 산세를 펼친 백덕산은 일대에서 가장 높아 조망이 빼어나다. 동쪽으로 굽이굽이 사행천을 이룬 평창강이 흐르고, 강원도의 내로라하는 명산들이 주변으로 산재해 멋진 풍광을 펼치고 있다. 산이 높고 조망이 좋다 보니 겨울철 눈꽃산행지로도 인기다. 북쪽 42번 국도가 지나는 문재터널에서 능선을 따라 사자산~백덕산으로 이어 가는 능선 산행을 하거나 남서쪽 법흥계곡에서 정상을 중심으로 원점회귀 산행을 하는 코스가 애용된다. 들머리의 법흥사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인 명찰로, 기도를 드리러 오는 불자는 물론 아름드리 금강소나무가 이룬 숲속에 들어선 고찰의 정취가 빼어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숲이 좋고 물이 맑은 법흥계곡을 따라 캠핑장이 즐비해 캠핑과 등산을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1,350m  
백덕산 높이  
▲

영월군 무릉도원면 ☎ 033-370-2426



### 법흥사계곡 원점회귀 코스

8.6km ⏰ 4시간 10분

홍원사를 벗어나며 길은 정상에 닿기까지 능선을 따른다. 들머리와 정상의 고도차가 850m나 되기에 가파른 곳이 많고 꽤 힘든 구간이다.



### 문재터널~홍원사 코스

9.3km ⏰ 5시간

문재터널에서 정상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능선구간이다. 산죽지대가 자주 나타나지만 곳곳의 암릉에서는 시원한 조망이 펼쳐진다. 홍원사 하산길은 꽤 가파르다.



### 산행 명소

#### 법흥사

적멸보궁 뒤편 언덕에 사리탑과 자장율사가 수도했다는 토굴이 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영원히 보전하기 위해 자장이 사자산 어딘가에 숨겨둔 채 적멸보궁을 지었다고 전한다. 사리탑에 올라 바라보는 풍광이 절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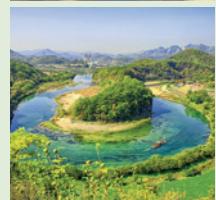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법흥로 1352  
033-374-9177 [www.bubheungsae.kr](http://www.bubheungsae.kr)



#### 선암마을 한반도지형

한반도를 빼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한반도 지형을 감싸고 흐르는 감입곡류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해 생겨났다. 동쪽은 높은 절벽에 나무가 울창한 반면, 서쪽은 경사가 완만한 평지에 가깝다.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로 555 ☎ 1577-0545





## 주변 산행

### 태화산 ▲ 1,027m ◎ 영월군 영월읍 ☎ 033-370-2542

강원도와 충북의 경계를 이루는 태화산은 사계절 변화무쌍하고 부드러운 능선길은 아름다운 비경을 보여준다. 주변의 치악산과 소백산, 월악산 같은 국립공원에 비해 찾는 발길이 적지만 덕분에 청정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서쪽을 제외한 삼면을 남한강이 휘감고 흘러 산행을 하는 동안 멋진 조망을 감상할 수 있고, 4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석회석 동굴인 고씨동굴이 있어서 산행의 묘미를 더해준다. 영춘과 팔괴리 그리고 고씨동굴 등이 산행 둘머리로 애용되며, 영춘면 오사리에서 출발해 능선을 따라 정상을 지난 후 고씨동굴로 하산하는 종주 코스가 일반적이다.



### 자연휴양림



#### 망경대산자연휴양림

망경대산자연휴양림이 위치한 망경대산은 중동면과 김삿갓면에 걸쳐 해발 1,087.9m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산림욕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치유의 숲', 숙박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다.

◎ 영월군 중동면 선도우길 177 ☎ 033-375-8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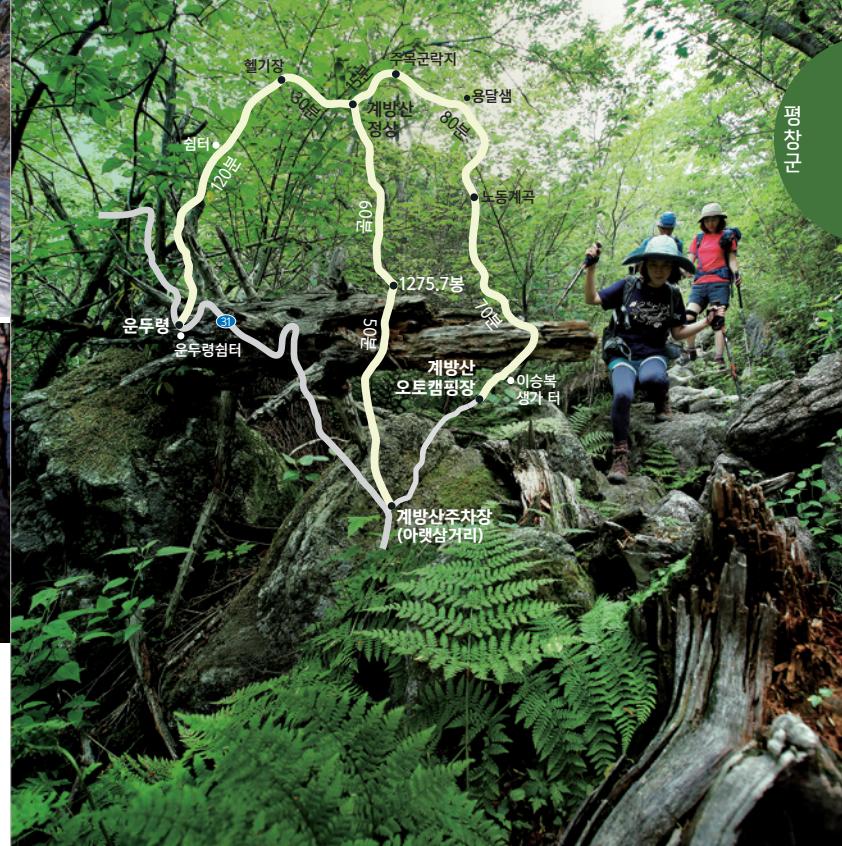
### 드라이브 코스



#### 와석재

고지기재(와석재)는 영월의 드라이브 코스 중 최고난도의 구간이다. 90도씩 꺾어지는 오르막으로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금커브길이 고갯마루에 닿을 때까지 연속되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 영월군 김삿갓면 주문리 ☎ [www.yw.go.kr/tour](http://www.yw.go.kr/tour)



## 평창군 • 계방산

원시림에 둘러싸인 남한 5위 봉

오대산국립공원에 속하는 계방산은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에 이어 남한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산이다. 높은 만큼 조망이 좋아 겨울 눈꽃산행이나 일출 산행지로 인기다. 산이 크고 높지만 열린 등산로는 단순하다. 서남쪽의 고개 운두령과 남쪽 삼거리교, 동남쪽의 계방산오토캠핑장이 있는 노동계곡 세 곳이 전부. 평창에서 홍천군 내면으로 넘어가는 1,000m가 넘는 고개인 운두령을 둘머리로 삼으면 정상까지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다. 실제 계방산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이 운두령으로 올랐다가 나머지 두 코스로 내려선다.

등산로는 크게 가파른 곳 없이 대부분 무난하다. 정상에 서면 북으로 가칠봉과 방태산, 개인산, 설악산, 점봉산 등이 환상적이고, 남쪽엔 청태산과 대미산, 금당산, 백석산, 밭왕산에 가리왕산까지 강원도의 내로라하는 산이 너울처럼 펼쳐진다. 정상에서 동쪽으로 600m쯤 가면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산다는 주목이 군락을 이룬 숲이다.

1,577.4m  
계방산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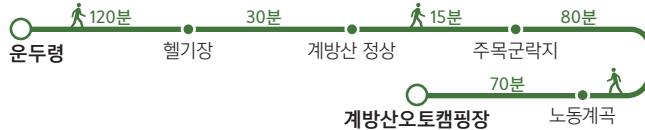
◎ 평창군 용평면 ☎ 033-332-6419 ☎ [odeae.knps.or.kr](http://odeae.knps.or.kr)



### 운두령~노동계곡 코스

9.5km 5시간 15분

출발지점이 1,000m가 넘는 고지대여서 정상까지 2시간쯤이면 닿는다. 정상에서 사방으로 멋진 조망이 펼쳐지고, 정상 지나 만나는 주목군락지가 신비감을 더한다.



### 운두령~아랫삼거리 코스

8.9km 4시간 20분

운두령에서 정상까지의 표고 차가 불과 488m여서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다. 정상에서 남쪽 능선을 따라 곧바로 하산하는 코스로, 조망을 즐기기에 좋다.



### 산행 명소

#### 이승복 생가 터

이승복 생가는 2000년 겨울에 이승복 일대기 기록영화를 촬영하면서 고증을 거쳐 안방과 윗방, 부엌, 외양간 등을 갖춘 목조 귀퉁집으로 복원했다. 생가 터 옆의 이승복 기념관과 자연학습장도 둘러볼 만하다.

▶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운두령로 500-11  
☎ 033-332-4323 ⓐ leesb-memorial.gwe.go.kr



#### 방아다리약수

'오대산 약수'로도 불리는 평창의 명수로, 탄산과 철분 등 각종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장병과 빈혈,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들어서는 길 양옆으로 울창한 전나무 숲길이 운치 가득하다.

▶ 평창군 진부면 방아다리로 1011-26 ☎ 033-335-7282



### 주변 산행

장암산 ⛰ 836.3m Ⓛ 평창군 평창읍 서동로 ☎ 033-330-2425

사행천을 이룬 평창강이 휘감고 지나는 장암산은 평창읍의 동쪽에 우뚝 솟았다. 강과 맞닿은 쪽은 깎아지는 절벽이어서 풍광이 수려하고, 정상에 서면 평창강과 어우러진 평창읍과 노산이 한눈에 조망된다. 산길이 험하지 않아 부담 없이 산행을 할 수 있는 장암산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다. 정상부 능선을 중심으로 북쪽 주진리와 남쪽 상리를 잇는 코스가 인기다. 상리교를 출발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지나 정상에 오른 후 장암굴을 거쳐 주진리로 내려서는 종주코스는 5.8km로 3시간쯤 걸린다.

### 캠핑장



#### 꿈의대화 캠핑장

넓고 쾌적한 터에 캠핑하우스, 글램핑동에 둘레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짐과 장비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오토캠핑용 캠프사이트도 많다. 평창강의 자류를 끼고 있어서 풍광이 좋고, 유명한 대화5일장이 가깝다.

▶ 평창군 대화면 해뜰마을길 49-7  
☎ 033-334-2277 ⓐ www.gumeidahwa.com

### 체험



#### 산채으뜸마을

곤드레와 각종 산나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 판매한다. 직접 산나물을 채취해 보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박을 하며, 마을 앞 평창강에서 물놀이와 민물낚시 체험도 가능하다.

▶ 평창군 평창읍 대골길 5  
⩂ sancha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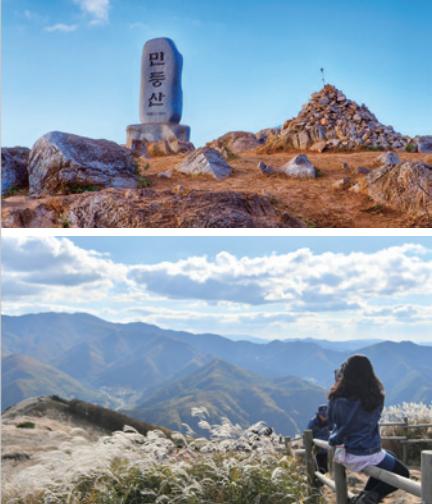
## 정선군 • 민동산

고산 초원에서 만난 은빛 바다

강원도 정선의 민동산은 약수산행과 억새산행, 철도산행지로 유명하다. 이름 그대로 7부 능선을 넘어서면 온 산은 나무가 거의 없이 억새로 뒤덮여 민동민동하다. 옛날에는 ‘한치릿산’이라 불리던 곳으로, 곤드레, 딱주기나물 등이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지금의 모양으로 변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제주도 동부 오름지대와 창녕 회왕산, 장흥 천관산, 포천 명성산, 영남알프스와 함께 우리나라 억새산행지로 손꼽힌다. 매년 가을 억새꽃 축제가 열리는 20만 평에 달하는 정상부 억새능선은 가을산행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산행을 시작하고 얼마간은 가파르지만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완만해지며, 잘 정비된 등산로도 매력적이다. 정성군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서 능선에서 합백산과 백운산, 가리왕산, 괘병산 등 강원도의 내로라하는 산들을 조망하기에도 좋다. 빗물에 녹은 석회암지대의 지반이 내려앉으며 형성된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인 돌리네를 볼 수 있다. 산자락의 고랭지 채소밭인 발구덕도 눈길을 끈다.

119m  
민동산 높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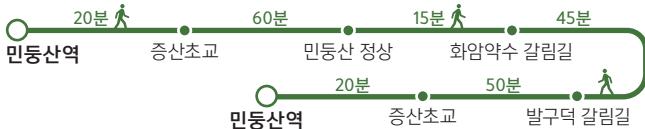
© 정선군 남면, 화암면 ☎ 1544-9053



### 증산초교 원점회귀 코스

⌚ 5.2km ⌂ 3시간 30분

민동산 역사와 독특한 지형인 돌리네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오름길이 가파른 편이지만 길이 않다. 열차를 이용하면 편하다.



### 화암약수 코스

⌚ 10.9km ⌂ 5시간

북쪽의 지역산과 연계한 능선종주 코스다. 능선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며, 주변 조망이 시원해서 걷는 재미가 좋다.



### 산행 명소

#### 몰운대

화암8경 중 제7경인 몰운대는 계곡 옆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다. 깎아지는 바위산 위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빼어나 예부터 시인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입구에서 정상의 너럭바위까지는 250m 거리다.

©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산43-1 ☎ 033-560-2369



**정암사 수마노 탑**  
신라 선덕여왕(12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이 정암사다. 정암사의 적멸보궁을 지난 산속에 수마노탑이 있다. 자장이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마노석으로 쌓은 탑이라고 전해온다.  
© 정선군 함백산로 1410 ☎ 033-591-2469  
© www.jungamsa.com





## 주변 산행

### 가리왕산 ▲ 1,561m 정선군 정선읍, 북면 ☎ 033-562-5833

정선의 지붕 역할을 하는 가리왕산은 덩치가 크고 그에 어울리는 험난한 산세를 자녔다. 정상인 상봉을 중심으로 남동쪽으로 중봉(1,435.1m), 하봉(1372.2m)이 이어지며 육중한 산세를 드러내고, 정상 서쪽으로는 마향치 건너 중왕산(1,376m)이 우뚝하다. 산행은 정상 북쪽의 장구목이골과 남쪽의 회동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접근이 쉽고 편의시설을 갖춘 회동리에서 정상으로 이어진 등산로는 세 코스다.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안쪽 어은골을 따라 정상에 올랐다가 능선을 타고 중봉까지 간 후 휴양림 입구 마을인 회동리로 내려서는 코스가 가장 인기다. 휴양림 안쪽 깊은 곳의 마향골을 따라 마향치로 오를 수도 있다. 마향치에서 동쪽 능선을 따르면 가리왕산 정상이다. 산의 북쪽,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의 숙암리 코스와 장구목이골 코스도 많이 찾는다. 이들은 오대천변의 지방도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로, 어떤 코스를 택하던지 정상까지 최소 서너 시간은 걸린다. 가리왕산은 복잡한 임도가 특징이다. 어느 코스라도 임도를 넘나들어야 한다.

### 캠핑장



####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캠핑장

백운산을 마주보고 있는 무명봉의 해발 600m 고지대에 자리한 캠핑장으로, 백운산과 동강이 산태극수태극을 이룬 채 뒤엉킨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916-212 ☎ 033-560-3464



#### 회동솔향캠핑장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입구 옆창한 솔숲 속에 자리 잡은 캠핑장이다. 소나무 그늘이 좋고, 시설도 훌륭하다.

☎ 정선군 정선읍 가리왕산로 570 ☎ 033-560-3453

### 드라이브 코스



#### 화암 소금강 드라이브 코스

소금강은 화암8경 중 제6경으로, 화암1리에서 물운리까지 4km 구간에 어천을 중심으로 좌·우에 기암절벽이 압권이며, 화암약수와 화암동굴, 물운대 등 불가리도 많다.

☎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 033-560-2369



## 태백시 • 함백산

### 사철 아름다운 천상의 화원

태백산국립공원에 속하는 함백산은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이다. 높이에 어울리는 웅장함을 지녔으며 전체적으로 산세가 완만해 후덕한 모양새다. 땅 밑에는 가늠할 수 없이 많은 양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 서쪽 골짜기에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정암사를 품었다.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을 산다는 주목도 군락을 이룬 보배 같은 산. 주능선이 곧 백두대간이기에 길이 훤하고 이정표와 각종 시설물도 잘 조성되어 산행이 편하다. 산길 대부분이 초지대로 이어져 걷는 내내 주변 조망에 거침이 없다. 봄부터 가을까지 능선을 따라 온갖 들꽃이 피어나 꽃산행에 최적이고, 겨울이면 만발한 설화가 등산객들을 불러 모은다. 정상 남쪽의 만항재는 우리나라에서 차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다. 등산로는 남쪽 화방재에서 만항재를 거쳐 북쪽 두문동재까지 능선을 따르는 주능선과 중간의 자작나무森에서 서쪽 고한으로 내려서는 길이 있다. 두문동재나 만항재는 버스가 다니지 않아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1,572.9m**

함백산 높이

3~5, 11~12

입산통제기간

▶

☎ 태백시 소도동 ☎ 033-550-0000 ☎ [www.knps.or.kr](http://www.knps.or.kr)



### 화방재~두문동재 종주 코스

10.7km 4시간 15분

완만한 능선을 따라 봄부터 가을까지 온갖 들꽃이 피어나 천상의 화원으로 불린다.  
주변 조망이 좋고 걷기도 편하다.



### 절골 코스

9km 4시간 20분

절골에서 적조암 삼거리로 지나 능선에 불기까지의 오르막 구간이 비교적 수월하다.  
이후 백두대간을 따라 만항재까지 길이 좋다.



### 산행 명소

#### 정암사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이며, 부처의 사리와 유물을 모신 7층의 수마노탑은 적멸보궁 산 중턱에서 정암사와 골짜기를 굽어보며 우뚝하다. 수마노탑에서 내려다보는 정암사와 골짜기 풍광이 멋지다.

☎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 ☎ 033-591-2469



#### 오토리조트스키장

함백산 정상 동쪽 1,100m에 위치한 고원레저시설로,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로 이루어졌다. 한여름에도 서늘할 만큼 도시와는 구별된 자연환경이 특징이며, 대자연과 휴양을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 태백시 서학로 861 ☎ 033-580-7000



### 주변 산행

**백병산** ▲ 1,259.3m 태백시 통동 ☎ 033-550-2535

오지산행지로 찾는 이가 드물던 백병산은 최근 서쪽 골짜기에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촬영되고, 남쪽 자락에 태백고원자연휴양림까지 들어서며 휴양과 관광, 산행을 함께 즐기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 촬영 세트장이 있는 통동을 기점으로 정상을 다녀오는 원점회귀 코스가 인기다. 원통골을 거쳐 정상에 올랐다가 서쪽 능선을 따라 내려서는 이 길은 2시간 30분쯤 걸린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에서 능선을 따라 정상에 오른 후 북쪽의 낙동정맥을 지나 통리역까지 가는 종주코스는 11km가 넘는 길이로, 먹을 것과 식수를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 휴양림



#### 태백고원자연휴양림

백병산 남쪽, 해발 700m 고지대에 들어선 휴양림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고원 관광휴양지다. 여름에도 시원해 모기나 해충 걱정이 없으며, 태백시 관광을 위한 베이스캠프 1순위로 꼽힌다.

☎ 태백시 머리골길 153 ☎ 033-582-7238 ☎ [www.foresttrip.go.kr](http://www.foresttrip.go.kr)(예약)

### 레저체험



#### 365세이프타운

테마파크를 즐기는 동시에 자연스레 몸으로 각종 재난을 체험하면서 안전의 중요성과 대처 요령을 익히게 되는 신개념의 에듀테인먼트 시설이다.

☎ 태백시 평화길 15 ☎ 033-550-3101  
☞ [www.365safetown.com](http://www.365safetown.com)



## 강릉시 • 노추산

강원유곡 위원시립의 산

서쪽 허리께로 송천이 구절양장 굽돌아 흐르는 노추산은 산 높고 강 깊은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산이다. 송천 옆엔 209m 높 이에서 떨어지는 인공폭포인 오장폭포가 장관이고, 정상부에는 설총과 울곡이 공부 했다는 이성대가 눈길을 끈다.

1,322m  
노추산 높이

강릉시에서는 왕산면 대기리의 능막골을 따라 오르는 코스와 고단2리에서 사달산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노추산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풍광이 좋고 볼거리가 많은 정선의 구절리를 중심으로 산행을 한다. 오장 폭포를 가까이 두고 오르는 절골과 구절리역에서 가까운 구절교, 송천의 상류인 종량동이 노추산의 들머리로 애용된다. 구절교에서 옹달샘 쉼터를 지나 이성대, 노추산 정상을 거쳐 절골로 내려서거나 종량동에서 시작해 폐광터, 병풍바위를 지나 이성대~노추산으로 이어지는 코스도 추천할 만하다. 구절교 코스는 부드러운 능선이 이어져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다. 절골은 계곡을 따라 올라야 한다. 종량동에서 사달산으로 이어가는 종주코스를 제외하면 어디라도 5~6시간쯤이면 산행을 마칠 수 있다. 노추산은 골짜기가 깊고 계곡과 샘터가 많다.

☏ 강릉시 왕산면 ☎ 033-640-5132



### ▣ 능막골~고단2리 코스

⌚ 12.5km ⓘ 4시간 15분

깊은 산의 정취가 가득한 코스로, 교통이 편리한 정선 쪽 등산로보다 찾는 이가 적지만 한가하고 여유로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 ▣ 절골~구절교 코스

⌚ 10km ⓘ 4시간 35분

절골은 강원도 산 특유의 협곡으로 가파르고 험하지만, 대승사로 내려서는 능선은 노거수가 울창한 완경사로 걷기에 좋다.



### ▣ 산행 명소

#### 이성대

신라의 학자 설총과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가 입산 해서 학문을 닦던 곳으로, 노추산의 정상부 능선에 있다. 매해 늦가을마다 이곳에서 율곡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는 '이성대다례제'가 열린다.

☏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1 ☎ 1544-9053



- 모정탑길**  
차순옥 할머니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26년간 쌓은 돌탑 3,000개를 둘러보는 길이다. 어머니의 자식사랑을 잘 보여주는 이 길은 총 1.2km로, 느릿느릿 걸어서 왕복 2시간쯤 걸린다.

☏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6 ☎ 033-640-5420





## 주변 산행

**고루포기산** ⚫ 1,238.3m ☎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 033-640-5132

선자령과 대관령을 지나온 백두대간이 만나는 첫 산이 강릉과 평창을 가르며 솟은 능경봉과 고루포기산이다. 해발 850m의 대관령을 들머리로 잡으면 산세가 부드럽고, 출발하자마자 '옹천수'라는 샘도 있어 편리하다. 이후 능경봉을 지나 고루포기산까지 와 길이다. 고루포기산에서 다시 되돌아 대관령면의 오목골로 내려서거나 대간을 따라 닦목령으로 산행을 이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능경봉과 고루포기산을 잇는 대간길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훈하게 조망이 트이는 곳을 만나기 힘들다. 그러나 그만큼 깊은 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크고 작은 봉우리가 여럿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길이 순탄하다. 대관령에서 능경봉을 지나 고루포기산에 올랐다가 오목골로 내려서면 9.4km로, 5시간 30분쯤 걸리고, 고루포기산에서 백두대간을 따라 닦목령까지 간다면 13.6km로, 7시간 30분쯤 소요된다.

## 수목원



### 강릉솔향수목원

다양한 테마정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이곳의 주인 공은 금강소나무다. 수목원 어디나 아름드리 소나무가 울창하고, 그 사이로 데크로 된 숲생태관찰로가 조성되어 산책하기에 그만이다.

☎ 강릉시 구정면 수목원길 156  
☞ 033-660-2322 ☎ [www.gn.go.kr/solhyang](http://www.gn.go.kr/solhyang)

## 드라이브 코스



### 현화로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해안도로로,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 아래의 심곡항에서 금진항에 이르는 구간이다. 007 영화 오프닝에 나온 법한 비경의 해안절벽 풍광이 펼쳐진다.

☎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 033-640-4536



## 동해시 • 두타산, 청옥산

무릉계곡 품은 신선의 땅

청옥산과 두타산은 언제나 쌍둥이처럼 불어다닌다. 떨 수 없이 돈독하고 가까운 동시에 무릉계곡은 보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생김새는 사뭇 달라서 청옥은 들판한 육산(肉山)인 반면 두타산은 울끈불끈한 근육질의 골산(骨山)의 모습을 보여준다. 무릉계곡을 출발해 삼화사~신선봉~절터를 거쳐 연칠성령에 오른 후 능선을 따라 청옥산과 두타산을 지나 다시 무릉계곡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숲에 가린 청옥산 정상은 조망이 좋지 못하다. 대신 서남쪽에 샘이 있다. 반면에 두타산은 북쪽을 빼고는 시원스럽게 트인다. 두타산 성은 임진왜란 때 이곳 청년들이 의병을 조직해 왜군을 물리친 항쟁으로, 호국의 열이 달긴 곳이다.

두 산 중 한 산만 올라갔다 와도 8시간, 둘을 한 번에 돌아보려면 12시간은 족히 걸리므로 1박 2일은 잡아야 제대로 걷고 감상할 수 있는 코스다. 만일 당일로 종주를 하려면 새벽 일찍 출발하거나 야간산행을 감수해야 한다.

☎ 동해시 삼화동 ☎ 033-539-3700~

1,353m  
두타산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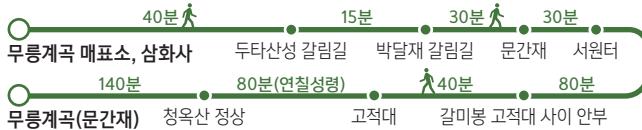
1,403.7m  
청옥산 높이



## 청옥산 코스

⌚ 16.6km ⓘ 7시간 35분

무릉계곡의 절경인 용추폭포를 비롯해 수려한 폭포들과 청옥산의 드직한 산세를 만나는 코스다. 기암절벽을 이룬 고적대가 매력적이다.



## 두타산성 코스

⌚ 13km ⓘ 6시간 20분

몽고군에 대향해 쌓은 두타산성을 따라 오르는 코스로, 아름을 넘는 금강송이 바위와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풍광을 펼치고 있다.



## 청옥산·두타산 종주 코스

⌚ 19.7km ⓘ 8시간 25분

청옥산과 두타산을 모두 지나는 코스로, 코스가 길고 길 또한 만만치 않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잘 챙기고 새벽부터 산행을 시작해야 한다.



## 산행 명소

### 무릉계곡

두타산과 청옥산, 고적대, 갈미봉, 1243봉으로 둘러싸인 계곡이다. 계곡 바닥을 이룬 벼루처럼 매끄럽고 넓찍한 바위 표면을 따라 내로라하는 명필과 문장가의 글씨가 빼곡하게 음각되어 있다. 골짜기로 좀 더 들어서면 깎아 세운 듯한 절벽 사이로 수많은 폭포가 장관이다.



⌚ 동해시 삼화로 584 삼화사 ☎ 033-539-3700



## 주변 산행

쉰움산 ⛰ 688m ⌂ 동해시 삼화동 ☎ 033-530-2232

쉰움산은 두타산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진 산줄기에 솟은 688m의 바위산이다. 산 곳곳에 치성을 드리는 제단, 돌탑 등이 즐비하다. 많은 이들이 찾는 두타·청옥산에 가려 등산객들의 발길이 뜸한 편이지만, 제멋대로 무리를 이루고 자란 금강송들이 도도한 자태를 자랑한다. 미로면 내미로리의 천온사에서 좌남골을 따라 올랐다가 돌무더기가 있는 삼거리에서 오른쪽 능선을 따르면 된다. 곧 오십 개의 우물을 가진 바위지대와 쉰움산의 절경인 병풍바위를 만난다.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붉은 둥치의 금강송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 캠핑장



### 무릉계곡 힐링캠프장

신선이 노닐었다는 명승지 무릉계곡에 들어선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이다. 산과 계곡이 주는 자연의 편안함 속에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1캠핑장과 2캠핑장을 합해 62개의 캠프사이트를 갖췄다.

⌚ 동해시 삼화로 467 ☎ 033-539-3700 ☎ mureungvalley.or.kr

### 드라이브 코스



### 동해대로

추암해변과 망상해변을 잇는 해안도로로, 추암촛대바위와 동해항, 묵호항 등 동해시의 대표적인 해안경치를 즐길 수 있다. 4km에 달하는 망상해변의 곧고 긴 해안풍광은 특히 아름답다.



## 속초시 •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신의 걸작품을 만나는 길

설악산 소공원에서 쌍천을 건너 울창한 숲길 따라 2km를 들어서면 6개의 물웅덩이가 아름다운 육담폭포를 만난다.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폭포가 장관이다. 커다란 소에서 용이 승천하는 듯한 비룡폭포는 400m 위에 있다. 비룡폭포에서 마지막 토왕성폭포 전망대까지 400m 구간은 경사가 심한 데크 계단을 올라야 한다.

소나무 사이에 들어선 전망대에 서면 거대하고 장엄한 바위벽에 걸린 토왕성폭포 자태를 드러낸다. 토왕골 상단에 걸린 토왕성폭포는 하단이 80m, 중간의 비스듬한 구간은 110m, 하이라이트인 상단은 130m로 국내 최장을 자랑한다. 칠성봉의 북쪽 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토왕골을 따라 북동쪽으로 흘러 토왕성폭포를 만들고 이후 비룡폭포·육담폭포를 거쳐 쌍천(雙川)에 합류하는 것이다. 거대한 힘지박 안쪽처럼 깎아 세운 듯 둘러싼 바위벽 한가운데 폭포수가 3단을 이루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절경이다. 12월 하순에서 이듬해 2월까지 폭포가 얼어 붙어 빙폭을 이루는데, 이때를 기다려 전국의 클라이머들이 빙벽 등반 대회를 열기도 한다.

● 속초시 설악동 033-801-0900

✉ <http://seorak.knps.or.kr>



### ● 소공원~토왕성폭포 전망대 왕복 코스

⌚ 5.6km ⚪ 2시간 55분

비룡폭포까지는 길이 편하고, 마지막 400m는 가파르다. 울창한 숲숲과 설악의 기암절벽, 수려한 계곡이 어우러져 눈길 닦는 모든 풍광이 절경이다.



### ● 산행 명소

#### 육담폭포

토왕성폭포 전망대 가는 중간에 만나게 되는 폭포로, 여섯 개의 담소가 이어지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토왕성폭포와 비룡폭포의 명성에 가려 유명세가 덜하지만 어디서도 빼지지 않는 비경을 보여준다.

● 속초시 설악산로 033-801-0900



#### 권금성

설악산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권금성은 봉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권씨와 김씨 두 장수가 하룻밤 만에 쌓은 성이다. 설악산의 경관을 사시사철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 속초시 설악산로 1091 033-801-0900





## 주변 산행

**청대산** ⚒ 230.8m Ⓛ 속초시 조양동 ☎ 033-639-2539

푸른 소나무가 무성해 '청대'라는 이름이 붙은 청대산은 속초8경 중 제1경으로 꼽힌다. 신자락을 따라 산림욕장과 둘레길이 조성되었고, 산책을 겸한 가벼운 등산을 즐기기에 있어 그만이어서 속초시민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다. 곳곳에 정자와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걷기에 편하다. 속초의 일출 명소로도 손꼽히는 정상까지는 30분 쯤이면 닿으며, 속초시의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다. 청호호와 어우러진 속초시가지와 동해 조망이 시원스럽고, 서쪽으로는 대청봉과 달마봉, 울산바위 등 외설악이 활활하기 그지없다. 교통이 편하고, 외옹치항, 영랑호, 영금정,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속초 명소도 지척이다.



## 캠핑장



### 설악동자동차야영장

가족단위 캠핑장으로 설악산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 설악항과 속초해변이 있어 야영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예약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 ⌚ 속초시 청봉로 25
- ☎ 033-801-0903
- 🌐 <https://reservation.knps.or.kr>



## 드라이브 코스



### 설악산 벚꽃터널

설악동의 목우재터널 입구 교차로에서 소공원 쪽으로 300m에 이르는 구간으로, 동해권의 대표적인 벚꽃명소다. 벚꽃이 화사한 봄날은 물론, 가을 단풍 때도 드라이브족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 ⌚ 속초시 도문동 일대
- ☎ 033-635-2003



## 삼척시 • 덕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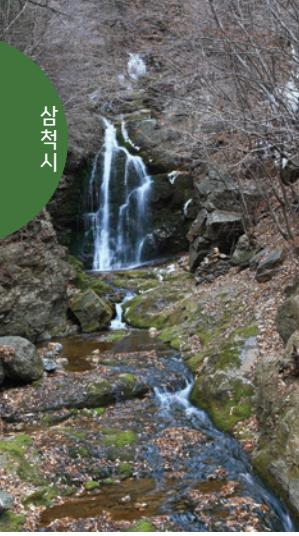
석회암이 이룬 기이한 풍경

석회동굴인 환선굴을 품은 덕항산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풍광을 가졌다. 산의 동쪽은 깎아지는 석회암 사면이 가득하고 반대쪽은 1,000m 전후의 고산평지가 많아 전형적인 경동지괴(傾動地塊) 지형을 띈다. 북쪽 사면에는 천연기념물 제178호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가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덕항산은 덕메기산으로도 불리며 '저 너머에 화전하기 좋은 더기(고원)가 있는 뒤'라는 뜻으로 '더기'는 지금 광동댐 수몰민들의 고령지채소밭이 되었다. 산행은 환선굴 매표소가 있는 삼척의 골말을 중심으로 원점회귀 코스가 가장 인기 코스다. 대이리 너와집과 선녀폭포, 대금굴, 환선굴 등 불거리가 많은 반면 험한 산세로 계단 구간이 많고 대체로 경사가 급하다. 반대편 예수원을 기점으로 오를 경우 길이 완만하고 시간도 짧지만 덕항산의 절경 대부분을 볼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다.

1,071m  
덕항산 높이

제178호  
천연기념물  
(대이동굴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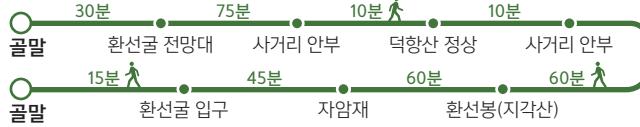
⌚ 삼척시 신기면 대기리 ☎ 033-541-9266



### 골말 원점회귀 코스

10km 5시간 5분

너와집과 대금굴, 환선굴, 선녀폭포 등 덕항산이 품은 최고의 풍광을 두루 거치는 코스다. 그러나 길이 가팔라 주의가 필요하다.



### 점촌~무사동 코스

6.5km 2시간 50분

예수원이 들어선 외나무골을 따라 오르는 길로, 구부시령부터 덕항산 지나 큰가래골로 내려서기까지 순탄한 능선이 이어진다.



### 산행 명소

#### 환선굴

환선굴은 석회암 동굴로 천연기념물 제178호다. 총 길이 6.5km로 탐방에 2시간쯤 소요되며 매표소에서 굴 입구 까지는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 033-541-9266



#### 죽서루

삼척시내의 오십천 변 절벽 위에 관동팔경의 제1경인 죽서루(竹西樓)가 있다. 보물(제213호)로 지정되었는데도 산발을 벗고 누에 오를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누마루에 올라 조망하는 오십천 풍광이 압권이다.

☏ 삼척시 죽서루길 37 ☎ 033-570-3722



### 주변 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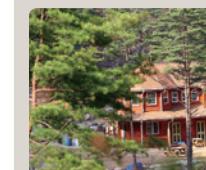
#### 육백산

▲ 1,244m ☎ 삼척시 도계읍 ☎ 033-570-3846

조 600섬 쯤을 뿐릴 수 있는 너른 고산평원이 있어서 육백산이라 부른다. 정상 바로 아래까지 임도가 나 있어서 접근이 쉽지만 찾는 이가 드물어 오지산행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 이웃한 응봉산을 연계해 산행을 하는 게 보통이다. 응봉산 동쪽 문의재나 서쪽 황조리, 두 산 사이 안부인 장군목에서 북쪽으로 간 후 오른쪽 산주터로 내려서도 좋다. 문의재에서 오르는 길은 단풍나무가 많아 가을산행에 제격이다. 능선에 샘이 없으니 미리 식수를 넉넉히 준비하고, 길이 희미해지는 곳이 더러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 휴양림



#### 검봉산 자연휴양림

검봉산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 청정한 계곡과 함께 깨끗하고 세련된 숙소로 유명하다. 20km의 산악자전거코스와 해돋이전망대로 특색있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525-145  
☎ 033-574-2553 ☎ [www.foresttrip.go.kr](http://www.foresttrip.go.kr)



#### 드라이브 코스



#### 이사부길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4.6km의 이사부길은 동해안 유품 해안절경으로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되었다. 소망의 탑과 비치조각 공원, 환상적인 조망을 가진 카페 등이 있는 새천년해안유원지가 불만하다.

☏ 삼척시 새천년도로



## 양양군 • 정족산 소나무향에 취해 걷는 산

바다로 나갔던 연어가 돌아오는 양양남대천을 굽어보고 자리한 정족산은 중심부를 이루는 세 봉우리가 옛날 솔에 붙은 세 개의 발 같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바위가 거의 없는 육산으로, 멋지게 자란 소나무가 많고 걷기에도 편해 산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대부분의 정족산 산행은 서쪽 미천골 계곡의 해담마을에서 682봉과 정상을 거쳐 남대천의 양지말까지 가는 능선 종주 코스를 따라 이뤄진다. 산행 초입에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있지만 대체로 완만하며,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길이다. 양양의 걷기길인 '39숨길 2코스'가 정족산 종주 코스와 겹친다. 해담마을에서 정족산을 지나 동쪽 내현리(버들골)로 내려서는 9.62km의 등산로도 있다. 정족산 일대는 한국전쟁 때 국군 제10연대 제1대대가 경계하던 곳으로 북한군과의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다. 등산로 곳곳에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여러 곳에 교통호가 조성되어 있다.

☏ 양양군 서면 갈천리 ☎ 033-670-2207



### 해담마을~양지말 코스

⌚ 11km ⓘ 4시간 50분

처음부터 끝까지 정족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며 들머리의 오르막만 지나면 날머리인 양지말까지 계속 편안한 오르내림이 이어진다.



### 산행 명소

#### 낙산사

국내 최고의 관음성지로, 해수관음상과 천수관음상을 비롯해 술한 성보문화재가 있다.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했다는 홍련암이 유명하다. 2005년 산불 이후 고증을 통해 조선시대 낙산사 모습으로 복원했다.

☏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



#### 양양송이축제

솔숲이 울창한 양양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연산 송이 산지이다. 매년 9월 말~10월 초면 남대천 둑치와 송이 산지별로 양양송이축제가 펼쳐진다. 특별한 향과 맛의 송이 요리시식회와 송이 채취 체험도 가능하다.

☏ 양양군 양양읍 송이축제장 ☎ 033-670-2207





## 주변 산행

### 설악산 주전골 Ⓛ 양양군 서면 대청봉길 ☎ 033-670-2722

조선시대에 도둑들이 숨어서 위조 엽전을 만들던 곳이라서 이름이 붙었다는 주전골은 설악산 오색약수 안쪽의 골짜기다. 독주암과 금강문, 등선대에 선녀탕, 십이폭포, 용소폭포, 주전폭포 등 곳곳에 기암괴석과 폭포가 늘어섰다. 이곳의 가을 단풍은 남설악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다. 바위 구간이 많지만 데크 탐방로가 잘 조성되었고, 길은 대체로 완만하다. 약수터탐방지원센터에서 용소폭포를 지나 한계령으로 오르는 44번 국도를 만나기까지 3.2km로 1시간 남짓 걸린다. 용소폭포 갈림길에서 왼쪽 십이폭포 방향으로 들어서서 등선대를 지나 훌림골로 가도 된다. 훌림골이 숨겨둔 여심폭포도 만날 수 있다. 이 코스는 5.3km로 3시간쯤 걸린다.

## 캠핑장



### 동산포 캠핑장

양양의 짙푸른 바다가 앞마당인 동산포 캠핑장은 나무데크가 깔린 각각의 사이트가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모든 사이트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사이트마다 통나무식탁과 의자도 마련되어 있고, 잔디가 깔린 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90-35 ☎ 033-670-2722

## 드라이브 코스



### 동호리해안도로

쓸비치에서 하조대 방향으로 뻗은 왕복 4차선 도로로, 동해가 가진 청량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달릴 수 있는 길이다. 동호리해변과 하조대해변의 역동적인 파도가 장관이다. 쓸비치 양양에서 5분쯤 간언덕에서 내려서며 보이는 풍광이 최고 절경이다.  
☎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일대



## 철원군 • 금학산

### 철원평야 위에 솟은 북녘 조망산

민통선에서 가까운 금학산은 서쪽의 고대산(832m)과 함께 북녘땅을 감시하는 두 개의 탑처럼 우뚝하다. 바로 동쪽이 드넓은 철원평야여서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는 금학산은 1980년대에 철의 삼각지역 안보 관광이 활성화되어 등산도 허용되기 시작했다. 등송읍에서 보면 산세가 부드러워 보이지만 산행을 시작하면 곳곳에 바위 지대가 나타나 길을 막아서는 거 같다. 오르내리는 산길 주변으로 군부대와 초소, 참호 같은 군사설이 많아 분단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산이다. 철원여고에서 매바위를 거쳐 정상에 오르는 길과 동송초교에서 마애불상을 지나 북동릉을 거쳐 정상까지 가는 길, 담터계곡을 따라 대소라치까지 간 후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정상에 서면 광활한 철원평야는 물론, 북쪽의 비무장지대 너머 '갈 수 없는 북녘 땅'도 흥미 조망된다. 서쪽으로 능선을 이어 보개산을 지나 고대산까지 간 후 경기도 연천의 신탄리로 내려서는 코스가 인기다. 군사지역으로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947m  
금학산 높이

☎ 철원군 동송읍 ☎ 033-450-5151



### 철원여고교~동송초교 코스

5km 2시간

금학산을 오르내리는 가장 짧고 심플한 코스다. 매바위와 얼굴바위, 마애불상 등 금학산이 명소를 두루 거친다.



### 담터계곡 코스

7.8km 2시간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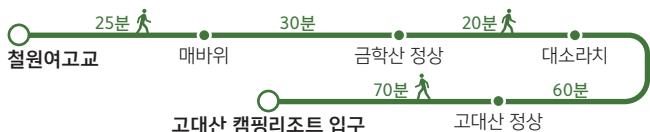
금학산이 품은 가장 긴 계곡인 담터계곡을 거슬러 오르는 코스다. 대소라치에 닿기까지 군 작전용 비상도로를 따른다.



### 금학산~고대산 종주 코스

10km 3시간 25분

두 산 모두 전망이 뛰어나고, 능선미도 좋다. 그러나 철원과 연천을 잇는 교통편이 불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 산행 명소

####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유역, 송대소 주상절리를 35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1주탑 비대칭 현수교'로 가운데 100m 구간은 바닥이 강화유리다. 또한 한여울길 코스와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이어진다.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12

평일 10:00~19:00 / 공휴일 10:00~21:00



### 주변 산행

#### 복계산

▲ 1,057.2m Ⓛ 철원군 근남면 ☎ 033-450-5559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줄기인 한북정맥이 지나는 복계산은 38선에서 북쪽으로 22km쯤 더 올라간 곳에 있다. 북한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명산으로 통한다. 매월당 김시습이 바둑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매월대가 있는 매월동을 기점으로 산행이 이뤄진다. 매월산장에서 왼쪽으로 매월대와 삼각봉을 지나 정상으로 가거나 매월대폭포가 걸린 계곡을 따라 삼각봉, 정상으로 코스를 잡아도 좋다. 오른쪽 원골계곡으로 들어서면 한북정맥을 거꾸로 짚으며 정상으로 이어진다. 한북정맥 출발지점인 수피령에서 시작하면 가장 짧은 코스다.



#### 휴양림



#### 두루웹 숲속문화촌

산림을 이용한 각종 체험과 휴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산림복합 체험 휴양단지다.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야영장, 에코어드벤처, 숲레저단지 등이 조성 중이다.(2021년 준공)

철원군 갈말읍 지경1길 69 ☎ 033-450-5198

#### 레저체험



#### 한탄강 래프팅

현무암 협곡으로 형성된 한탄강 줄기에서 즐기는 한탄강 래프팅은 수량이 풍부한 여름철에는 스릴을 만끽하는 레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난이도와 거리에 따라 6개 코스로 나뉘며, '순답~군단교구간'과 '직탕교~승일교구간'이 인기 코스다.

033-450-5559 [www.cwg.go.kr/site/tour](http://www.cwg.go.kr/site/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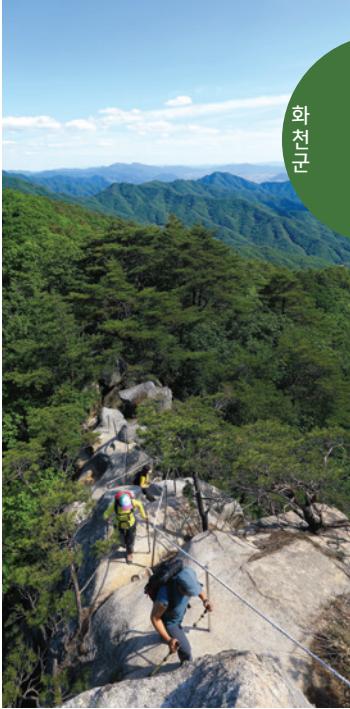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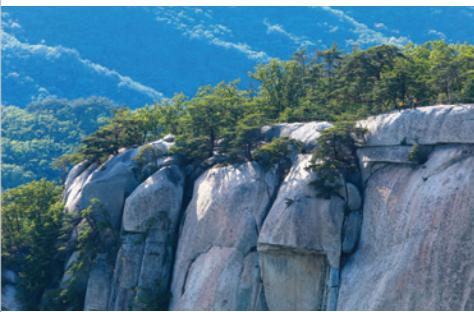


## 화천군 • 용화산

네 개의 호수 위에 솟은 천혜의 요새

춘천과 화천의 경계에 자리한 용화산은 산림청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의암호와 소양호, 춘천호, 파로호에 둘러싸인 채 천혜의 바위성벽을 이루고 있다. 시작길로 애용되는 양통골은 입구에서부터 삐죽삐죽 기이한 모양을 한 바위봉우리들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상에서 서쪽으로 발달한 능선을 따라 만장봉과 새남바우, 촛대바위, 층계바위, 하늘벽, 득남바위 등 깎아지른 기암괴석이 펼쳐진다. 특히 만장봉 너럭바위에서 바라보는 하늘벽 촛대바위는 용화산의 백미이다. 바위가 많다보니 사방으로 조망이 트여 북한강과 어우러진 춘천시내와 주변으로 너울처럼 펼쳐진 산 풍광이 장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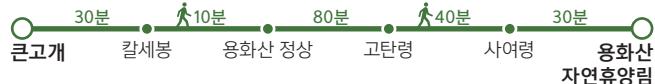
화천과 춘천을 잇는 지방도 상의 고개인 큰고개에서 산행을 시작하면 만장봉을 거쳐 용화산 정상까지 40분이면 오른다. 여기서 남동쪽으로 능선을 이어 사여령까지 간 후 사여골로 내려서면 용화산자연휴양림에 닿고, 사여령에서 배후령까지 이어가도 좋다. 정상에서 북쪽으로 능선을 이어 성불치로 가는 코스도 있다.



### 큰고개~자연휴양림 코스

6.8km 3시간 10분

화천과 춘천을 경계 지으며 뾰은 용화산 능선을 따르는 코스로, 하늘벽과 촛대바위 등 용화산 기암 대부분을 만날 수 있다.



### 큰고개~성불치 코스

6.8km 2시간 10분

화천에서 용화산을 오르내리는 대표 코스로, 용화산 정상부의 기암절벽과 성불치로 이어지는 능선이 좋다. 파로호로 이어진다.



### 산행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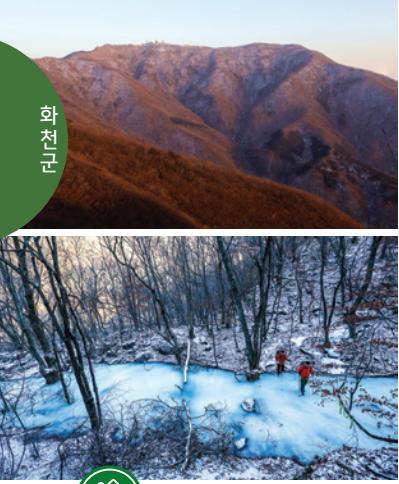
#### 곡운구곡

우리나라 수많은 구곡 중 실경이 남아있는 곳은 괴산의 화양구곡과 화천의 곡운구곡 뿐이다. 정조대왕이 아꼈던 실학자 정약용은 곡운구곡의 아름다움을 '중옹(中庸)의 미(美)'라고 표현했다. 방화계·청오협·신녀협, 백운담 등 아홉 곳의 명풍광은 청정한 사내천을 따라 늘어서 있으며, 사내천과 나란히 도로가 나 있어서 차를 타고 들러보기에 편하다.



화천군 간동면, 하남면 033-440-2733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033-440-2733



## 주변 산행

**화악산** ⚒ 1,468m Ⓛ 화천군 사내면 ☎ 033-440-2575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정중앙에 있는 화악산은 강원도 내에서도 꽤 높은 산이다. 정상 부에서의 조망도 빼어나 춘천과 가평, 화천 일대의 산하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화악산 정상은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대신해 정상에서 서남쪽으로 800m쯤 떨어진 중봉이 등산객이 오를 수 있는 화악산 정상 역할을 한다. 삼일리에서 출발해서 쉬밀고개까지 간 후 쌍룡폭포가 있는 조무락골로 내려섰다가 중봉으로 오르거나 북서쪽 도마치 고개에서 수덕바위봉과 석룡산을 이어 중봉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조무락골과 큰골, 오림계곡 등 이름난 골짜기가 많은 가평 쪽으로 여러 등산로가 발달해 있다.

### 캠핑장



### 평화의댐 오토캠핑장

파로호 상류 북한강 가에 들어선 캠핑장으로, 데크가 설치된 캠프사이트가 28면, 파사석이 깔린 사이트는 22면이 있다. 화장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은 물론, 잔디광장과 야외무대, 운동시설까지 갖췄다.

☎ 화천군 화천읍 비수구미길 145-145 ☎ 070-7727-1292

### 드라이브 코스



### 해산전망대 가는 길

화천댐 아래에서 평화의댐으로 이어지는 해산령 아래로 해산터널이 생겼고, 터널 위 고갯마루엔 쉼터를 갖춘 해산전망대가 들어섰다. 전망대에 오르면 청정한 비무장지대를 살펴볼 수 있다.

☎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 11-7 ☎ 033-440-2575



## 양구군 • 사명산

양구의 청정 품은 파로호 조망 명산

1,198m  
사명산 높이  


한반도의 중심인 양구는 물론, 화천과 춘천, 멀리 인제군까지 네 지역을 조망할 수 있어서 이를 볼은 사명산은 산행이 가능한 양구의 최고봉이다. 북으로 파로호가 에두르고 남쪽은 소양호가 휘감은 한가운데 우뚝한 사명산은 산정에서 보이는 사방으로 확 트인 풍광으로 인해 사철 등산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명산을 오르는 등산로는 남쪽의 수인리와 웅진리, 동쪽 인대리, 북쪽의 월명리와 상무룡리를 기점으로 삼는다. 이 가운데 웅진리 코스가 인기다. 문바위봉을 거쳐 능선을 따라 사명산 정상으로 오르거나 저고리골을 따라 선정사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면 짧은 시간에 정상에 닿을 수 있다. 선정사에 이르기 전, 금강사 입구의 취수용 탱크가 있는 곳에서 연각암을 지나 능선으로 불는 길도 있어 웅진리를 기점으로 다양한 코스의 조합이 가능하다. 정상에서 동쪽의 청양현으로 이어가거나 북쪽의 당골로 내려서는 코스는 좀 더 길고 한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 양구군 양구읍 ☎ 033-480-2161



### 금강사~흥덕사 코스

8.2km 3시간 25분

금강사에서 골짜기를 거쳐 정상에 오른 후 도솔지맥인 남쪽 능선을 이어 문바위봉으로 가는 코스다. 능선과 계곡의 조화가 좋다.



### 금강사~당골 코스

8.3km 4시간 30분

당골 코스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등산로로, 중간의 절터에서 왼쪽 지당골이나 오른쪽 안부 너머 당골로 길이 갈라진다. 어디든 한적하다.



### 산행 명소

#### 박수근미술관

한국적인 화가로 기난한 서민의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고자 일생을 바친 화가 박수근의 고향이 양구다. 화가의 유품과 습작, 판화, 삽화 등의 명작을 상설전시하고 있다.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 033-480-2655



#### 두타연 트레킹

국내 최대의 열목여 서식지인 두타연을 둘러보는 이 길은 DMZ의 생태계를 볼 수 있다. 민통선 내 지역으로 안내소에서 출입신청서를 작성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총 8.5km로, 2시간 30분쯤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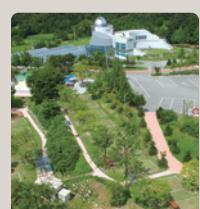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 033-480-2251

### 주변 산행

**대암산 솔봉** 1,129m 양구군 동면, 남면 ☎ 033-480-2530

대암산(1,304m)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통제된다. 그래서 일반인이 산행을 위해 갈 수 있는 곳은 그 남쪽의 솔봉까지다. 대부분의 산행은 남면 가오작리의 광치자연휴양림을 기점으로 하며, 후곡악수터와 양구생태식물원을 연계해 등산로가 이어진다. 대체로 길이 순하고 능선이나 정상에서의 조망도 좋아 가족산행지로 안성맞춤이다. 휴양림에서 솔봉에 오른 후 식물원으로 내려서는 코스는 7.8km로 5시간쯤 걸린다. 용늪이 있는 대암산과 도솔산 구간은 출입 2주 전에 양구군청 생태산림과(033-480-2530)의 출입 허가를 받고, 그 공문을 지참해야 한다.

### 캠핑장



#### 국토정중앙천문대 캠핑장

국토정중앙천문대 주변으로 캠프사이트가 조성되었다. A구역은 잔디가 깔렸고, 충분히 널찍하며 캠핑용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다. B구역은 바닥이 목재데크다. 캠핑장 내 차량출입은 안 되고, 수레로 짐을 날라야 한다.

양구군 남면 국토정중앙로 127  
033-480-2586 ☎ yanggu.ticketplay.zone



### 레저체험



#### 한반도스카이 짚라인

65m 높이에서 맑고 푸른 파로호를 가로질러 한반도섬 까지 750m를 질주하는 새로운 개념의 짚라인이다. 한마리 새가 된 듯, 파로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담으며 익스트림 레포츠의 쾌감을 즐길 수 있다.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로869번길 195  
033-482-1113 ☎ hanbandsky.co.kr



## 인제군 • 방태산

3둔5가리 품은 청정 오지의 산

예부터 깃들어 살기 좋은 땅으로 손꼽히던 3둔5가리를 품은 방태산은 각종 희귀식물과 물고기 등 생물자원이 풍부하다. 최고봉인 주역봉을 중심으로 깃대봉(1,435.6m)과 배달은석, 구룡덕봉(1,388.2m)을 아우르는 주능선이 둘러싸고, 능선을 걷는 내내 북쪽으로 설악산에서 오대산으로 뻗어가는 백두대간이 훤히 조망된다. 남쪽으로는 개인산 일대의 울창한 숲이 바다처럼 펼쳐지며 깊은 산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방태산 산행은 북쪽 방태산 자연휴양림과 남쪽 대개인동 계곡을 품은 미산리를 기점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다. 방동리에서 시작하는 코스는 휴양림 안쪽 완만한 경사의 적가리골을 따라 구룡덕봉까지 간 후 왼쪽 주능선으로 붙으면 된다. 이단폭포를 시작으로 골짜기 주변의 식생이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찾는 들판이다. 대개인동에서 개인약수를 거쳐 오르는 코스는 길이 짧지만 가파르다. 어두니계곡을 따라 구룡덕봉에 오른 후 능선에 붙는 길도 있다. 홍천군 내면의 살둔에서 출발하면 숯돌봉과 개인산(1,342m)을 거치는 가장 긴 코스가 된다. 오르막 구간은 짧지만 매우 가파르다.

1,444m  
방태산 높이  
▲



### 방동리~대개인동 코스

16.7km 9시간 35분

계곡은 청정하고 아름다우며 능선은 사방으로 조망이 탁 트인다. 전체 코스가 길어서 장비와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한다.



### 살둔~방동리 코스

18.9km 9시간 40분

개인산과 방태산을 잇는 코스로, 길이 사납고 길어서 1박2일은 족히 걸린다. 강원도 오지산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 산행 명소

#### 방동약수

옛날, 심마니가 산삼을 캔 자리에서 발견했다는 전설이 서린 약수로, 탄산이 강해서 설탕만 넣으면 사이다 맛이 난다. 철과 망간, 불소 등이 다양 험유되어 위장병과 소화 증진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이들이 찾는다.

인제군 방동약수로 89-59 033-460-2170



#### 원대리 자작나무숲

자작나무숲은 이색적인 풍광 때문에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핫플레이스다. 입구 주차장에서 방명록을 작성한 후 3.5km의 임도를 따라 올라야 하지만 경사가 완만하고 길이 넓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다.

인제군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760 033-461-9696



## 주변 산행

**곰배령 탐방** ♂ 1,164m ☎ 인제군 기린면 ☎ 점봉산생태관리센터 033-463-8166

설악산국립공원의 최남단에 있는 곰배령은 점봉산 남쪽에 자리한 넓은 초원지대 안부다. 그 모양이 마치 배를 하늘로 내밀고 누운 곰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철따라 온갖 희귀한 야생화가 피고 지는 곰배령 일대는 국내에서 생태보존이 가장 잘 된 곳으로 손꼽힌다. 그래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사철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다. 점봉산생태관리센터 사이트에서 예약해야 하며, 왕복 10.5km로 4시간쯤 걸린다.

☞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예약 필수)



## 휴양림



### 방태산 자연휴양림

울창한 숲의 수종이 대부분 우량 활엽수로 가을 단풍이 화려하다. 내린천의 상류지역으로 물이 맑고 이단폭포와 마당바위 등 자연환경이 아름다우며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이 즐겨 찾는다.

☎ 인제군 기린면 방태산길 377  
☏ 033-463-8590 ☎ [www.foresttrip.go.kr](http://www.foresttrip.go.kr)

## 레저체험



### 내린천 래프팅

길이 60.76km의 내린천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으로, 여름철 래프팅 천국이다. 주변 풍광이 빼어나고 물살의 완급이 적절하며 도로가 나란히 불어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 인제군 인제읍 내린천로 ☎ 033-460-2170

122m  
응봉 높이  


## 고성군 • 응봉

높이로 가늠할 수 없는 감동

화진포 소나무숲산림욕장의 정상인 응봉은 높이가 122m에 불과하다. 그러나 10여 분이면 닿는 꼭대기에 서면 압도적인 풍광이 펼쳐진다. 북쪽으로 울창한 숲속에 둘러싸인 화진포호수와 화진포해수욕장이 남태평양의 섬 휴양지처럼 이국적이고, 그 너머로는 대진항과 북한의 해금강까지 조망된다. 응봉 탐방로는 단순하다. 해파랑길 49코스와 겹치는 이 길은 김일성 별장에서 출발해 응봉 정상에 올랐다가 거진항까지 이어갈 수 있으며, 총 5km다. 길을 걷는 동안 바다와 호수, 산이 조화를 이룬 멋진 풍광을 만난다. 응봉 외 대부분의 길이 평지고, 길 찾기도 쉬워 누구나 걷기 편하다. 응봉만 오르내리거나 응봉에서 조망을 즐긴 후 화진포호수를 한 바퀴 도는 자전거길을 이용해도 좋다. 자전거는 고성군청에서 무료로 대여해 준다. 둘레 11km의 화진포호수는 이승만 별장과 안보전시관으로 이용되는 김일성 별장, 이기봉 부통령 별장 등 볼거리가 있고, 길은 평탄하다.

☎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 033-680-3677



### 화진포의 성~거진항 코스

⌚ 5km ⏰ 1시간 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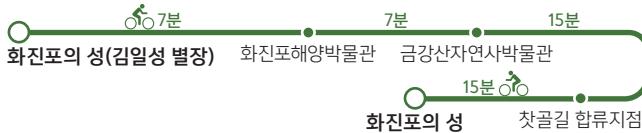
아름다운 해변과 고요한 호수, 이를 감상하는 전망대가 최고의 하모니를 이뤘다. 빼곡히 자란 솔숲 사이로 난 오솔길이 걷기 좋다.



### 화진포 자전거길 코스

⌚ 11km ⏰ 44분

화진포 호수와 북호, 남호, 화진포해변까지 두루 돌아보는 11km의 자전거 산책길은 고성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 산행 명소

####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화진포 일대는 분단 전후 남과 북 정치인들이 이용하던 별장이 여럿 남아 있다. 지금은 모두 역사안보전시관으로 가축되어 그들의 발자취와 생활상을 들려주는 시간 여행 장소가 되었다.

☎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길 280 ☎ 033-680-3677



### 통일전망대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의 해발 70m 고지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전국의 실향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분단의 상처를 달래고 통일을 기원하는 곳이다. 철책선 너머 금강산의 해금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481  
☎ 033-682-0088 ☎ www.tongiltour.co.kr



### 주변 산행

마산 ⛰ 1,052m ☎ 고성군 간성읍 흘리 ☎ 033-680-3677

산세가 말처럼 생겨서 마산봉이라고 불리며, 백두대간을 따라 오를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산이다. 금강산 1만2천 봉 중 하나로, 맑은 날이면 항로봉 북쪽의 비로봉을 비롯한 금강산 연봉이 훤히 드러나고, 동쪽으로 탁 트인 동해가 시원스럽다. 서쪽의 알프스 스키장에서 오르내리는 코스가 대표적이다. 용대리에서 소간령과 마장터를 거쳐 대간령까지 간 후 병풍바위봉을 지나 마산으로 오르기도 한다. 겨울철 눈이 쌓일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미시령에서 신선봉과 대간령을 거쳐 마산봉으로 오르는 전통적인 산길이 있으나 비법정 탐방로여서 출입이 제한된다.

### 캠핑장



#### 송지호 오토캠핑장

울창한 소나무숲과 맑고 푸른 동해에 우뚝 선 죽도, 캠핑장 전용인 해변까지 갖춘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산과 호수, 바다를 한 곳에서 모두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캠핑장이다. 7번국도 옆에 있다.

☎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90  
☎ 033-681-5244 ☎ gwgs.ticketplay.zone

### 레저체험



####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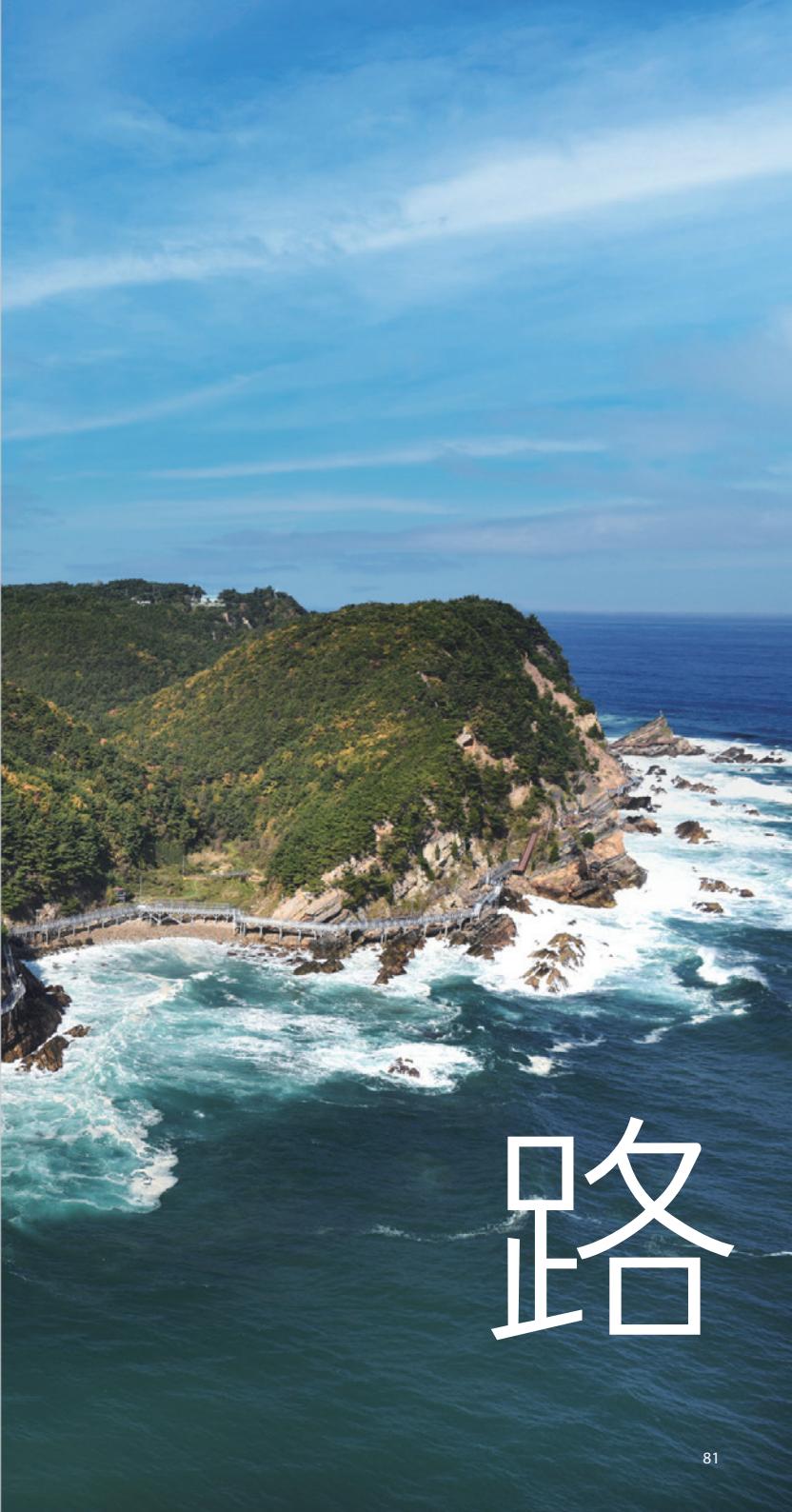
최대 30명까지 팀으로 진행하는 서바이벌게임 레저체험시설이다.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기 때문에 만7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심에서 펼쳐지는 군사 작전의 짜릿한 긴장과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

☎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90-22 ☎ 033-680-4040

#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몸과 마음을 열고 강원도를 걸어보자. 험준한 산과 수려한 계곡, 그리고 눈부신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걷기 마니아라면 동해안을 따라 장쾌하게 이어지는 해파랑길, 대관령과 강릉의 명소가 어우러지는 바우길,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를 걷는 DMZ 평화의 길 등의 장거리 코스에 도전해보자. 그 밖에도 홍천 수타사 산소길, 철원 한여울길, 영월 외씨버선길, 춘천 봄내길, 인제 소양강둘레길 등 강원도 내륙의 속살을 헤집는 보물 같은 길이 수두룩하다.



路名  
足跡



## 해파랑길

찬란한 해와 푸른 바다를 친구 삼아 걷는 길

동해의 시작과 끝을 하나로 꿰는 해안 종단길이다. 부산 오륙도해맞이공원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해안선을 따라 770km를 잇는다. 총 10개 구간 중 강원도는 삼척~동해, 강릉, 양양~속초, 고성 등 4개 구간이 속한다. 해파랑길은 이름에서부터 푸른 동해를 느낄 수 있다. 떠오르는 ‘해’와 동해의 색 ‘파랑’, ‘~와 함께’라는 뜻의 조사 ‘랑’이 합쳐져 해파랑길이 됐다.

☞ [www.durunubi.kr/haeparang-main.do](http://www.durunubi.kr/haeparang-main.do)

### 고성 구간

46~50코스 > 66.5km

해파랑길의 대단원은 우리나라 최북단, 절경과 명승지가 많은 고성의 뒷이다. 관동팔경인 청간정, 이름처럼 예쁜 야아진향, 청학정, 송지호를 지나면 전통가옥 왕곡마을에서 숨을 고른다. 가진항과 거진항을 구경하고 화진포 호수에 닿는다. 마지막 50코스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 속초·양양 구간

41~45코스 > 61.4km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손꼽히게 아름다운 조망은 덤이 구간이다. 주문진 해변, 거북이를 닮은 갯바위가 있는 휴휴암, 하조대를 지나면 낙산사에 숨을 고르고 속초로 접어든다. 대포항을 지나면 아바이마을을 만난다. 배에 몸을 실어 물길을 건너면 속초 등대전망대에 오른다.

### 강릉 구간

35~40코스 > 80.4km



이 구간은 지역에서 먼저 조성된 강릉 바우길의 동해안 구간과 겹친다. 옥계해변부터 만나는 소나무 숲은 강릉 제일의 명품 숲이다. 모래시계로 유명한 정동진, 굴산사터, 중앙시장, 남항진해변 등을 지나면 수려한 경포대를 따라 돋나. 주문진을 지나면 향호에서 양양으로 넘어간다.

### 삼척·동해 구간

29~34코스 > 64.7km

- 32 맹방해변입구 22.9km | 8:00
- 31 궁촌레일바이크역 8.8km | 3:00
- 30 용화레일바이크역 7.0km | 2:30
- 29 호산버스터미널 18.3km | 7:30
- 28 올진군 부구삼거리 10.7km | 5:00





## 바우길

두발로 강릉과 강원도를 즐기는 힐링 여행

바우길은 강릉이 고향인 소설가 이순원 씨와 산악인 이기호 씨, 그리고 뜻있는 강릉 시민이 뭉쳐 만든 길이다. '바우'는 강원도 말로 바위란 뜻이다. 강원도 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감자바우'라는 말에서 바우길 이름을 따 왔다. 바우길은 대관령과 경포와 정동진까지 아우르는 바우길, 평창·정선·강릉의 명소를 걷는 올림픽아리바우길, 울트라바우길, 계곡바우길, 대관령 숲길 등 다양한 코스를 갖췄다.

033-645-0990 [www.baugil.org](http://www.baugil.org)

## 계곡바우길

여름철 계곡 트레킹으로 특화된 코스다. 양양 남대천 상류인 오지의 법수치계곡 일대를 한 바퀴 도는 코스다. 계곡 안으로 들어가 첨벙첨벙 걸으면 더위는 안녕이다. 코스는 부연약수주차장~법수치계곡~부연약수주차장, 거리는 20.5km, 8시간쯤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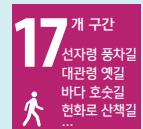
## 국민의 숲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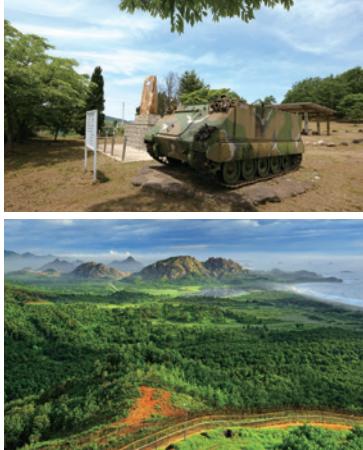
대관령의 심원한 숲길을 걷는 길이다. 사계절 걷기 좋으며 가족 나들이와 초보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코스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제궁골(이깥나무숲길)~바우길1구간/2구간 갈림길~신재생에너지전시관, 거리는 10km, 4시간쯤 걸린다.

### 바우길

17구간 > 230km

다양한 바우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오리지널 코스로 백두대간 선자령, 유흘 깊은 고개인 대관령의 옛길을 따라 강릉으로 넘어온다. 경포와 정동진까지 강릉의 절경인 산과 바다를 아우르며 230km 이어진다. 총 17개 구간으로 나뉜다. 산길은 1구간 선자령 풍차길(12km, 5시간)과 대관령 옛길(14.7km, 6시간), 바닷길은 5구간 바다 호숫길(15km, 5~6시간), 9구간 현화로 산책길(13.5km, 5시간) 등을 추천한다.





## DMZ 평화의 길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를 걷다

DMZ 평화의 길은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정착시키고, 접경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다. DMZ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고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가장 침예한 대결 지대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했던 곳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완화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는 철원, 파주, 고성 지역에 우선 길을 만들었다.

☎ 1644-1303 ☎ [www.durunubi.kr](http://www.durunubi.kr)

### 철원 코스

⌚ 15km ⓘ 3시간(오전 10시, 오후 2시 출발)

아름다운 철원평야와 한탄강에 서린 아픈 역사의 상흔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철원은 화산암이 분출되어 이루어진 용암대지인 철원평야와 그 사이를 깊이 파고든 한탄강이 흐르는 땅이다. 백마고지 진적지, 유해발굴지역 등 남북전쟁의 아픔이 깃들어 있는 땅을 만날 수 있다.



### 고성 A코스

⌚ 7.9km ⓘ 2시간 30분(오전 10시, 오후 2시 출발)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고성 DMZ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이다. 금강통문을 거쳐 금강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해금강과 금강산 풍경은 도보 여행에 나선 이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 고성 B코스

⌚ 7.9km ⓘ 2시간 30분(오전 10시, 오후 2시 출발)

금강산과 해금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코스다. A코스와 달리 차량을 이용한다. 금강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해금강과 금강산 풍경은 뜨거운 감동을 준다.

歩 도보 이동거리 2.7km



## 춘천시 • 봄내길

춘천의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길

봄내길은 춘천의 대표 걷기길이다.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인 실레이야기길, 춘천의 옛 길인 석파령길, 호수를 끼고 걷는 의암호 나들길, 소양호에서 배를 타고 마을길을 걷는 소양호 나루터길 등 이야기가득한 아기자기한 코스들로 이뤄져 있다. 춘천여행을 하면서 함께 즐기기에 적당한 3시간 내외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 033-251-9363 ☎ [www.bomne.co.kr](http://www.bomne.co.kr)

### 1코스 실레이야기길

⌚ 5.2km ⓘ 2시간

실레마을은 마치 숲이 앓혀있는 것 같이 산으로 포근하게 싸여있는 마을로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이다. 이 길은 봄봄, 동백꽃 등 김유정의 대표작 12편의 배경지를 따라 걷는 둘레길이다. 김유정이 야학을 하던 금병의숙 터와 그가 직접 심었다는 느티나무, 김유정문학촌과 김유정 생가, 춘천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금병산 전망대 등이 이어진다.



### 2코스 물깨말구구리길

⌚ 8.1km ⓘ 3시간

구곡폭포를 중심으로 봉화산, 검봉산의 능선을 따라 걷는 산길이다. 산과 계곡을 따라 걷지만 크게 힘들지 않은 코스로 무기제조장, 여성의병 윤희순의 가옥 등 의병활동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강원도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문배마을 먹거리촌은 점심 먹기에 좋고, 아홉 구비를 돌아서 떨어지는 봉화산 기슭의 구곡폭포의 물줄기가 장관이다.



### 4코스 의암호나들길

⌚ 14.2km ⓘ 5시간

호반도시 춘천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서면 수변공원에서 봉황대까지 의암호 자전거길을 따라 걷는다. 174m 길이의 소양강 스카이워크, 인형극과 전시를 체험할 수 있는 춘천인형극장, 춘천상상마당, 의암호를 한눈에 보이는 봉황대 정자 전망대 등을 두루 거친다.





## 원주시 • 금강소나무 숲길

치악산 구룡계곡의 명품 소나무숲(무장애길)

원주의 진산 치악산은 횡성과 영월까지 걸쳐 있는 영서지방을 대표하는 큰 산이다. 치악산은 산꾼들에게 악산으로 유명하다. 오죽했으면 '치가 떨리고 악에 받쳐 치악산'이란 말까지 나왔을까. 치악산 북쪽의 비로봉 오르는 길목에는 수려한 구룡계곡이 흐르고, 여기에 순하고 부드러운 금강소나무 숲길이 나 있다. 숲길은 무장애길로 조성되어 누구나 쉽게 계곡을 즐길 수 있다.

☎ 033-732-5231 ◎ 1km ◎ 1시간



### 구룡탐방지원센터 → 구룡교

구룡탐방지원센터를 지나면서 숲길이 시작된다. 길 초입부터 서늘한 공기와 깊은 숲 냄새가 예사롭지 않다. 길 왼쪽으로 '황장금표(黃腸禁標)' 표지석이 있다. 말 그대로 황장목을 베지 말라는 경고를 새긴 돌이다. 황장목은 조선시대 궁궐을 짓는 데 사용했던 속이 붉고 단단한 금강소나무를 말한다.



### 구룡교 → 구룡사

구룡교를 건너면 미끈하게 빠진 노송들이 나타나고, 구룡사 일주문인 원통문에서 절정을 이룬다. 원통문에서부터는 느릿느릿 걸어야 제맛이다. 청아한 계곡 물소리가 귀를 뚫고 나무를 스치고 가는 바람이 몸을 관통해 사라진다. 부도탑을 지나면 어느덧 구룡사다.



### 구룡사 → 구룡담 → 세령폭포

금강소나무 숲길은 구룡사까지만 이어지지만, 내처 세령폭포까지 가보는 게 좋다. 절을 지나면 구룡소가 나온다. 의상대사에게 쫓긴 아홉 마리 용 중 하나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다는 곳이다. 폭포는 작지만 그 앞의 크고 깊은 소가 신비롭다.

## 홍천군 • 수타사 산소길

수타계곡 따라 공작의 품에 안기다

영서 지방의 명산인 공작산은 높이는 1,000m가 안 되지만, 품이 넓은 산이다. 공작산의 산세는 마치 공작이 화려한 두 날개를 펼친 형국이다. 그 원쪽 날개의 품에 청정한 수타계곡이 흐르며 천년고찰 수타사가 안겨 있다. 수타사 산소길은 수타사의 문화유산과 수타계곡의 수려한 자연이 행복하게 어우러진다.

☎ 033-430-2792 ◎ 6km ◎ 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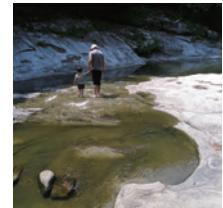
### 수타사 주차장 → 공작교 → 수타사

절 초입의 올창한 숲길을 지나면 경내로 들어선다. 공작교를 건너면 수타사가 나온다. 수타사는 신라 성덕왕 7년(708년)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졌다. 아담하고 소박한 대적광전 앞에는 부처님께 바치는 청수를 올려놓는 석물이 특이하다.



### 공작산 생태숲 → 평소 출렁다리

절을 나오면 공작산 생태숲이 이어진다. 넓은 잔디밭과 다양한 꽃과 나무가 가득한 생태숲이다. 생태숲이 끝나면서 호젓한 산소길이 이어진다. 힐끔힐끔 계곡을 내려다보며 걷다 보면 평소 출렁다리를 만난다. 다리를 건너면 수타사계곡의 명소인 평소가 나온다. '평'은 구유를 말한다. 물과 바위, 그리고 시간이 만든 작품이다.



### 용담 → 공작교 → 수타사 주차장

평소를 지나면 날 것처럼 상상한 계곡이 펼쳐진다. 길은 계곡과 눈높이로 나 있다. 줄줄~ 쏴~ 활활~ 계곡 목소리를 친구 삼아 걷는다. 한참을 걷다 보면 바위와 암반이 수려한 곳을 만나는데, 여기가 용담이다. 용담은 이 곳과 통하는 박쥐굴을 통해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품고 있다. 용담에서 내려오면 공작교에서 마무리된다.





횡성군

영월군

## 횡성군 • 횡성호수길

### 횡성의 평화로운 산과 물을 담은 둘레길

횡성호수길은 수려한 횡성호와 이를 둘러싼 주변의 호젓한 숲길을 걷는 길이다. 횡성댐 건립으로 갑천면의 5개 마을이 수몰되었고, 수몰민이 만든 망향의 동산도 둘러볼 수 있다. 총 6개 코스가 있고, 5코스는 거리가 짧고 나이도가 쉬워 가족 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

☏ 033-343-3432

#### 1코스 횡성댐길

⌚ 3km ⏱ 2시간

횡성댐부터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횡성댐의 풍경이 일품이고, 늦가을 낙엽 쌓인 숲길의 정취가 빼어나다. 낭떠러지와 가파른 길이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2코스 능선길

⌚ 4km ⏱ 2시간

완만한 능선을 걸으며 횡성호수와 호수를 둘러싼 숲을 감상하는 길이다. 중간중간 호수 조망이 잘 보이며, 낙엽송, 충충나무, 자작나무, 산벚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자라는 울창한 숲이 일품이다.



#### 5코스 가족길

⌚ 4km ⏱ 2시간

망향의 동산부터 횡성호 안쪽을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다. 원편으로는 호수, 오른 편에는 산을 끼고 걷는 편안한 길이다. 호수가 보이는 쉼터가 있는 삼림욕장, 옛 화성초등학교 자리한 화성옛터 전시관 등을 거친다.



## 영월군 • 외씨버선길 영월 구간

### 오래된 친구처럼 정겨운 강변길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인 청송, 영양, 봉화, 영월 4개 군이 모여 만든 4색 매력의 길이 외씨버선길이다. 4개 군이 뭉치면 조지훈 시인의 승무에 나오는 외씨버선과 같이 생겼다 해서 외씨버선길로 이름 붙었다. 영월 구간은 알려지지 않은 영월의 오지를 따른다. 11구간 마루금길, 12구간 김삿갓문학길, 13구간 관풍헌 가는 길이 있다.

☏ 033-374-6830

#### 11길 마루금길

⌚ 15.4km ⏱ 7~8시간

한 발은 경상도에, 또 한 발은 강원도에 딛고 평균 해발 1,000m 이상의 능선(마루금)을 따라 걷는 길이다. 길의 중간에 영월의 명산이 아래산 정상에 오른다. 종착점이 김삿갓 문학관이며 외씨버선길 구간 중 가장 난도 높은 구간이다.



#### 12길 김삿갓문학길

⌚ 12.4km ⏱ 4~5시간

방랑시인 김삿갓의 모든 걸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김삿갓의 행적을 따라 자연을 벗으며 걷다 보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 길속의 박물관에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김삿갓 묘역, 조선민화박물관, 와석리, 가랑이봉 둘레길 등을 지난다.



#### 13길 관풍헌 가는 길

⌚ 23.6km ⏱ 8~9시간

4백 년 시간을 두고 김삿갓과 단종을 만나는 길이다. 김삿갓은 무슨 이유로 단종의 관풍헌을 찾아갔을까? 두 사람은 만났을까? 거리가 멀고 만만찮은 길을 걸으면 옛사람의 익척같은 삶을 그려볼 수 있다.





## 평창군 • 효석문학 100리길

### 이효석 소설 따라 메밀꽃 정취 가득한 길

효석문학 100리길은 이효석의 소설 속 공간과 실제 봉평면의 평화로운 정취가 어우러진 길이다. <메밀꽃 필 무렵> 속의 인물인 하생원 일행의 여정과 이효석이 다니던 평창초등학교까지 강길, 들길, 옛길 등이 봉평면에서 평창읍까지 이어진다. 특히 9월 메밀꽃이 필 때는 소설의 장면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 033-330-2771

#### 1코스 문학의 길

⌚ 7.8km ⏰ 2시간 30분

평창군 관광안내센터에서 효석문화마을을 거쳐 용평여울목에 이르는 문학길이다. 소설가 이효석의 문학적 발자취가 따라가는 구간으로 이효석의 문학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이효석문학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실제 배경지인 효석문화마을, 숲과 하천을 따라 펼쳐지는 메밀꽃밭을 감상할 수 있다.



#### 2코스 대화장터 가는 길

⌚ 13.3km ⏰ 3시간 30분

용평여울목에서 백암교를 지나 대화 땀띠공원에 이르는 시골길이다. <메밀꽃 필 무렵> 배경지 중의 하나인 대화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코스로 시골 정취 가득한 속사천과 대화천의 농로, 지역 명소인 토마토 유리온실 재배 단지, 농촌체험이 가능한 대화 6리 광천마을 등을 지난다.



#### 3코스 강따라 방립가는 길

⌚ 10.4km ⏰ 3시간

대화 땀띠공원에서 평창강을 따라 평창 방립농공단지에 이르는 길이다. 굽이치는 대화천과 금당계곡이 합류된 평창강을 따라 고봉과 절벽이 조화된 멋진 경관을 보여준다. 4일, 9일에 5일장이 열리는 대화 전통시장, 종교와 예술이 만난 대화성당 등을 볼 수 있다.



## 정선군 • 하이원 하늘길(운탄고도)

### 석탄 운반하던 길에는 야생화 가득

운탄고도라 불리는 하이원 하늘길은 고한읍의 하이원 리조트를 둘러싼 백운산 일대에 펼쳐진 산길이다. 해발 1,100m가 넘는 고지에 있어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진다. 예전에 석탄을 나르던 길이라 운탄고도라 불리기도 한다. 운탄고도는 차마고도에서 따와 석탄(炭)을 운반(運)하던 높은(高) 길(道)이란 뜻이다. 탄광들이 폐광하면서 하이원리조트가 관광 자원으로 만들었다. 다양한 코스가 있어 자신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 1588-7789

#### 가족코스

⌚ 7km ⏰ 3시간(곤돌라 이용)

가족이 가볍게 걷기 좋은 코스다. 곤돌라 이용해 백운산 정상인 마운틴탑에 오르기에 걷기 부담이 적다. 완만한 임도를 따라 야생화를 감상하면서 강원도의 웅장한 산들을 조망할 수 있다.



#### 하늘길 코스

⌚ 10.8km ⏰ 4시간

백운산의 울창한 고원숲길과 도릉이 연못 그리고 옛 탄광 나르던 운탄고도 임도가 이어지는 길이다. 해발 1,200m를 넘나드는 이 길은 걷는 맛도 좋지만 조망이 일품이다. 길 건너편으로 백두대간의 산들이 첨첩 물결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 둘레길 코스

⌚ 8km ⏰ 4시간

새로 조성한 난이도가 높은 상급자 코스다. 샤크레이저 군락지가 장관이며 자작나무숲도 일품이다. 둘레길 코스가 개장으로 하늘길 코스와 연결하면 원정 회귀가 가능하다. 길의 굴곡이 심하므로 스틱을 사용해 무릎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다.





## 동해시 • 목호 논골담길

어촌 달동네 애환이 서린 벽화마을

목호항에서 언덕 위 등대까지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있는 목호등대마을은 하늘이 가까운 전형적인 달동네다. 비록 집은 비좁지만 바다를 마당으로 삼은 덕분에 조망이 일품이다. 구석구석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는 지역 화가들이 머구리, 어부 등 실제 주민들을 모델로 그림을 그려 강렬한 리얼리티가 담겨 있다.

☎ 033-530-2232 ◎ 1km ◎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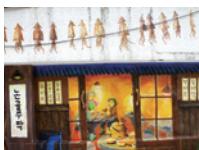
### 논골1길

입구에서 제법 가파른 골목을 올라가면 '머구리와 문어 이야기' 벽화가 나온다. 손을 뻗어 문어를 잡으려는 머구리의 눈매가 날카롭고, 살살 약 울리는 듯한 문어의 모습이 익살스럽다. 이 그림은 실제 동해안 머구리를 모델로 그렸기에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바람의 언덕은 조망 좋은 전망대로 드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논골 만복이네 식구들' 등상 앞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눈부시게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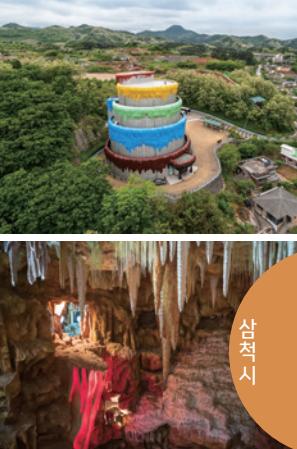
### 논골2길

그물을 손질하는 어민들의 모습을 담은 벽화를 지나면 논골2길 갈림길을 만난다. 힐링하우스 펜션을 지나면 목호극장을 만난다. 물론 벽화로 그린 극장이다. 논골3길 입구에서 걸작 벽화를 만난다. 눈 내리는 밤하늘 아래의 등대, 마을, 배, 집들이 마치 꿈꾸는 듯하다.



### 논골3길

논골3길로 접어들면, 반대편 달동네 마을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오징어잡이 어선과 다양한 오징어 벽화들을 둘러보고 올라가면, 목호대망의 등대를 만난다. 논골1,2,3길은 모두 등대가 종점이다. 목호등대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란 고전 영희의 활영지이기도 하다.



## 삼척시 • 오랍드리산소길

삼척 시내의 바다, 숲, 문화재가 어우러진 길

오랍드리산소길은 삼척시청을 중심으로 산과 숲, 강과 바다를 아우르는 도심 둘레길이다. '오랍드리'는 '집 주변'을 가리키는 강원도 방언이다. 지역민에게는 일상 휴식의 공간이고, 여행자에게는 삼척 시내와 자연을 아우르는 산책길이다. 동해안 해변, 자연 숲길과 죽서루, 봉황산 미륵불 등 수려한 자연과 문화재 등이 어우러진 길로 총 5개 코스가 있다.

☎ 033-570-3546

### 1코스 봉수대길

◎ 3.5km ◎ 1시간

삼척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여 봉황산 입구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조선 시대에 동해 침입에 대비한 광진산 봉수대를 만날 수 있고, 전망대 쉼터에서 바라보는 동해 풍경이 일품이다.



### 2코스 봉황산길

◎ 3.5km ◎ 1시간

호랑이산으로 불릴 만큼 산세가 험했던 봉황산에 정자와 산책로를 조성해 걷기 좋은 길로 조성했다. 다양한 수목과 꽃나무로 삼림욕장을 조성했고, '봉황산 미륵불', 이른 아침에 열리는 해산물을 판매하는 번개시장 등을 거친다.



### 3코스 강변길

◎ 4km ◎ 1시간

오십천의 아름다운 풍광을 따라 걷는 강변길로 길이 쉬워 아이들과 함께 걷기 좋다. 유서 깊은 번개시장, 2002년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조성된 액스포타운, 관동 팔경 중 하나로 내륙 절벽에 조성된 죽서루, 기와집이 인상적인 문화예술회관, 장미공원 등을 두루 거친다.





## 철원군 • 한여울길

### 한탄강 절경 따라 금강산 가는 길

강원도 철원은 화산이 분출되어 이루어진 용암대지 철원평야와 그 사이를 깊이 파고든 한탄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을이다. 하지만 과거 남북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지금까지 그 상흔이 휴전선으로 남아 있는 분단의 땅이다. 우리의 아픈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두루 만나는 걷기 코스가 한여울길이다.

☏ 033-450-5765

#### 1~2코스 주상절리길

⌚ 11km ⏳ 3시간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레저 도로를 따르는 길이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승일교와 직탕폭포 등이 이어지며 한탄강 현무암 협곡의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다. 2코스는 1코스의 한탄강 건너편 강변을 따라 이어진다.



#### 3코스 금강산 가는 길

⌚ 11km ⏳ 4시간

철원의 평야를 걸으며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코스다. 철원 9경 중 하나로 기려기, 오리가 무리 지어 찾아드는 학저수지, 도피안사, 노동당사, 한국 단편 문학의 거두 이태준(상허)의 문학비와 생가터가 있는 용담 등을 두루 둘러본다.



#### 4코스 동주산성길

⌚ 2.5km ⏳ 1시간

지역 향토 문화재를 찾아 따라가는 역사체험 코스다. 철원향교는 설총, 안향 등 총 25현의 위패를 봉안한다. 동주산성 전망대는 구 철원읍과 철원 평야지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철원향교 → 동주산성 → 새우젓고개**

#### 5코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 5.52km ⏳ 2시간

노동당사에서 출발해 소이산에 올라 철원 평화와 DMZ 일대를 감상하고 노동당사로 돌아오는 길이다. 고려시대부터 봉수대가 있었던 소이산은 한국전쟁 이후 출입통제 됐다가 생태숲을 만들면서 비로소 열렸다. **노동당사→지뢰꽃길→소이산→노동당사**



## 화천군 • 비수구미 생태길

### 온둔하고 싶은 파로호의 오지마을

강원도 화천의 비수구미는 대표적 오지마을이다. 1944년 화천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파로호가 비수구미를 육지 속의 섬마을로 만들었다. 해산령에서 비수구미 마을로 가는 길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만끽할 수 있다. 길을 따라 이어진 계곡은 원시림이 이어진다. 비수구미 마을은 계곡과 산으로 둘러싸여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마을에서 맛보는 산채정식도 일품이다.

☏ 033-440-2575 ⏳ 6km ⏳ 2시간



#### 해산령에서 출발

오지마을 비수구미로 가는 출발점은 해산터널을 지나면 나오는 해산령이다. 해산령 표지석이 보이고, '해산령과 평화의 댐 사이에는 아흔 아홉 개 굽이'라고 써진 안내판도 보인다. 해산령에서 비수구미까지 이어진 임도를 따라 내려가면 된다.



#### 호젓한 숲길, 청정한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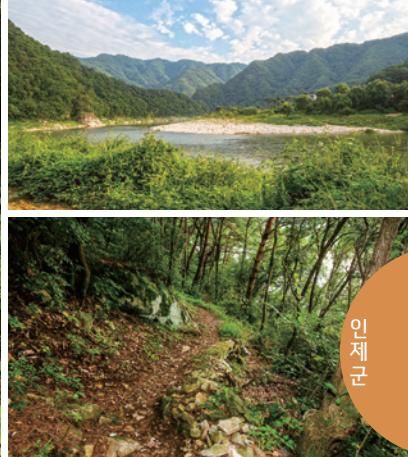
임도는 호젓한 숲길이다. 차량이 다니지 않아 좋다. 구불구불 이어진 임도를 따르면 줄줄 소리가 들리는 계곡을 만난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길은 평坦해지고, 주민들이 가꾼 밭들이 정겹다.



#### 오지마을 비수구미

비수구미에는 한국전쟁 이후 화전민 100여 명이 촌락을 이루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5가구 정도가 살며 등산객에게 맛난 산채백반을 팔고 있다. 비수구미 생태길은 비수구미 마을에서 끝나지만, 보행교를 건너 파로호의 고즈넉한 수변을 산책하는 걸 추천한다. 특히 10월 말 단풍이 절정일 때에는 산과 호수가 온통 붉고, 물안개가 일어나 장관을 이룬다.





## 양구군 • DMZ펀치볼둘레길

전쟁의 상처 품은 천연기념물 펀치볼을 걷다

DMZ펀치볼둘레길은 수려한 경관 속에서 한국전쟁의 아픔이 묻어 있는 펀치볼 마을 일대를 둘러보는 길이다. 펀치볼 마을은 해발 1,1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다. 지명은 한국전쟁 당시 외국 종군기자가 가칠봉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화채그릇(Punch Bowl)처럼 생겼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민통선 내 미확인 지뢰지대와 인접해 탐방객의 안전과 산림유전자원보호를 위해 탐방 예약제를 운영한다.

☏ 033-481-8565 ☺ www.komount.kr

### 1코스 평화의 숲길

⌚ 14km ⓘ 4시간

남방한계선(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져 동서로 그어진 선)에 가장 근접한 코스로 교통호, 병ector, 월북방지판, 철책선 등 분단의 상징물들을 만난다. 자작나무숲이 일품이며 와우산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조망이 일품이다.



### 2코스 오유밭길

⌚ 21.1km ⓘ 5시간

대우산 자락의 고원 황톳길을 걷는다. 산양 서식지인 산림유전자보호림의 다양한 식생과 야생 동물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야생화공원, DMZ자생식물원, 선사유적지 등을 차례로 거친다.



### 3코스 만대별판길

⌚ 21.9km ⓘ 5시간 30분

대암산 자락의 능선과 계곡을 오르내리며 소나무 조림지 아래로 펼쳐진 만대평야의 시원한 조망을 즐길 수 있는 길이다. 만대마을, DMZ자생식물원, 성황당과 출참나무, 양구통일관 등을 두루 거친다.



## 인제군 • 소양강둘레길

오래된 친구처럼 정겨운 강변길

'마지막 청정고을, 생태계의 보고'로 꼽히는 인제군. 소양강둘레길은 소양강 상류 지역에 인제군이 야심 차게 만든 걷기 길이다. 길은 소양강 상류 전인민답의 원시림을 지나고, 호젓한 강변을 따른다. 이곳은 여러 사람이 어울려 시끌벅적하게 다녀오는 길이 아니다. 마음 맞는 친구와 둘이서 오붓하게 떠나는 게 제맛이다.

☏ 033-460-2170

### 1코스 하늘길

⌚ 9km ⓘ 3시간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 공원 앞에 '여기서부터 소양강둘레길 시작점입니다'라고 써진 커다란 입간판이 출발점이다. 다리를 건너면 감자꽃이 피고, 옥수수가 자라는 살구미 마을이 나온다. 마을을 지나 본격적으로 숲길이 시작된다. 굵직한 네 그루 소나무 아래에 자리한 성황당, 폐가를 개조한 인제문인협회의 시산방(詩山房) 등을 지난다. 2코스 갈림길에서 언덕을 올랐다가 내려오면 종착점인 소류정에 닿는다.



### 2코스 내린길

⌚ 2.1km ⓘ 1시간

2코스는 1코스 중간의 쉼터(갈림길)에서 강변길 따라 소류정에 닿는 코스다. 1코스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양강둘레길은 1코스를 따르다가 2코스로 바꿔 걸으면 비교적 편하게 걸을 수 있다.



### 3코스 주상절리길

⌚ 4.9km ⓘ 2시간 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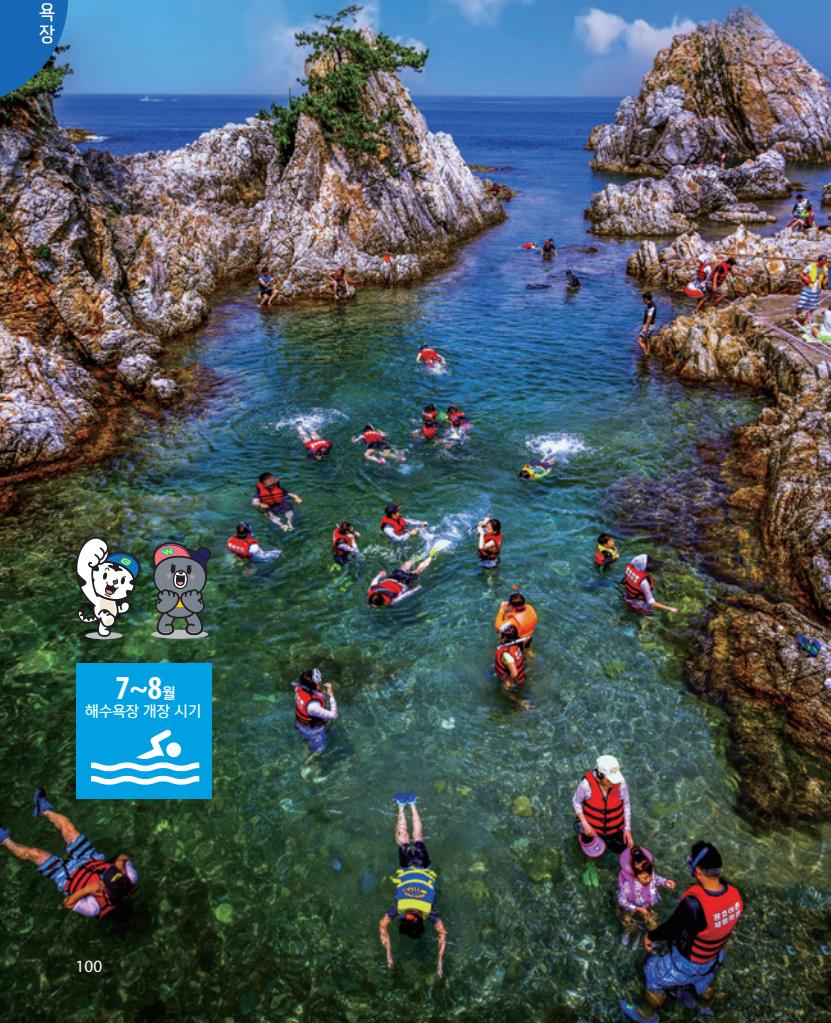
3코스는 1,2코스의 소양강 반대편을 걷는 길이다.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에서 출발해 용바위쉼터, 바람골 등을 지나 군축교에서 종료된다. 소양강 주변의 다양한 나무와 기암괴석, 병풍폭포, 바람골에서 시원한 강변 조망 등을 즐길 수 있다.



# 보기만 해도 신나는 바다, 강원도 해수욕장

백두대간 험준한 고개를 넘으면 선물처럼 눈부신 해변이 펼쳐진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일품인 고성, 호수와 해변이 어우러진 속초, 서핑의 메카 양양, 커피 향기 그윽한 강릉, 명품 일출로 유명한 동해, 스노클링과 카약 타기 좋은 삼척 등 비슷하면서 색다른 강원도의 바다를 즐겨보자.

해수욕장



7~8월  
해수욕장 개장 시기



## 강릉, 커피 향 솔솔 나는 눈부신 해변들

### 경포해수욕장

경포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부산의 해운대와 더불어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찾는다.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 아늑한 느낌을 주며 6km의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진다. 인근에 관동팔경의 경포대, 다섯 개의 달이 뜬다는 경포호 등 명소가 있다.

### 안목해수욕장

가족단위 피서객이 많이 찾는 안목해변은 아름다운 커피거리로 더 유명하다. 500m쯤 되는 해변 거리에 유명 브랜드 커피부터 핸드메이드 커피까지 다양한 커피전문점들이 있어 저마다 독특한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

### 정동진해수욕장

정동진 해변은 전국 해돋이 명소 중 가장 유명한 곳이다.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유명하며, 청량리역에서 해돋이열차가 운행되면서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인근에 모래시계 공원, 레일바이크, 바다부채길 등 볼거리와 놀거리가 많다.

### 서핑체험

#### 금진, 주문진해수욕장

강릉에는 서핑하기 좋은 해수욕장이 의외로 많다. 금진해수욕장과 주문진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바닷물이 맑아 가족 단위 피서객이 많다. 파도가 비교적 크고 일정하게 들어와 짜릿한 서핑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033-640-4414

### 해변 축제

#### 경포 썬더 페스티벌

한여름 경포해변에서 10일 동안 열리는 강릉의 대표 축제다. K-POP 공연, DJ 파티, 물총놀이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해변에서 바라보는 블랙아이글스 에어쇼가 장관이다.  
☎ 033-640-4414 ☎ 7~8월

강릉시



## 동해, 애국가에 등장하는 일출 1번지

**망상해수욕장** ☎ 동해시 동해대로 6270-10(망상관광안내소) ☎ 033-530-2234  
망상해수욕장은 1.4km의 넓은 백사장과 수령 20~30년의 울창한 송림, 청정한 해수, 얕은 수심 등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망상해수욕장의 자랑은 백사장 안에 자리한 '망상 오토킴핑리조트'다. 캠프사이트 외에도 숙소와 카라반 등의 시설이 좋다.

**추암해수욕장** ☎ 동해시 촛대바위길 2 ☎ 033-530-2801

애국가 첫 소절의 일출 배경 화면인 촛대바위 옆에 있는 백사장 길이 150m의 작은 해수욕장이다.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아담한 추암마을 앞에 있어 정겹다. 추암에는 거북바위, 부부바위 등 기암괴석이 장관이고, 72m의 출렁다리도 볼 만하다.

**어달해수욕장** ☎ 동해시 일출로 217 ☎ 033-530-2234

망상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다. 해안선의 길이는 약 1km 정도로 비교적 짧지만, 해변 풍광이 빼어나다. 어달해변에서 묵호항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횟집 타운을 형성해 활어회를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 스킨스쿠버 체험



### 추암해수욕장

자연경관이 수려한 추암과 추암해수욕장 일대는 수온이 따뜻하고 바다가 잔잔해 스킨스쿠버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체험이다이빙, 비치다이빙, 보트다이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033-530-2801

## 해변 축제



### 해맞이 행사(망상, 추암해수욕장)

동해 최고의 일출 명소인 망상과 추암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유서 깊은 해맞이 행사로 먹거리와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다양하고 흥겨운 공연이 열린다.

☎ 033-530-2234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속초, 사계절 언제 찾아도 좋은 정겨운 해변

**속초해수욕장** ☎ 속초시 해오름로 190 ☎ 033-639-2027

속초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시내에서 가까워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사람들로 북적인다. 해안선 약 2km, 백사장 길이 약 500m이고,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다. 공원과 꽃길, 송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해수욕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외옹치해수욕장** ☎ 속초시 해오름로 ☎ 033-639-2027

대포항 근처의 백사장 길이 400m, 폭 50m 규모의 아담한 해수욕장이다. 외옹치 해안은 속초팔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속초해수욕장 끝 지점부터 외옹치 해안을 잇는 1.74km의 '바다향기로'는 속초의 새로운 명소다.

**등대해수욕장** ☎ 속초시 영랑해안길 ☎ 033-639-2027

2004년 여름 처음으로 개방된 백사장 길이 600m, 폭 15~50m의 작은 해수욕장이다. 인근에 동명항과 영금정, 등대진망대와 영랑호 등의 관광 명소들이 즐비하다. 낚시 명소로도 유명하며 해변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가 잠시 쉬어가기 좋다.

## 요트 체험



### 청초호

청초호는 천혜의 항구 역할을 담당한다. 청초호를 출발해 속초해수욕장에서 보이는 조도 앞을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영금정과 속초 등대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 속초시 액스포로 ☎ 033-637-4504

## 해변 축제



### 수제맥주축제

여름철 해변과 잘 어울리는 축제다. 속초 브루어리 2개소와 전국 15개 맥주업체, 지역 맥거리 8개소 등이 참가하는 여름철 축제로 젊은 층에 인기가 좋다.

☎ 속초시 해오름로 177

⌚ 033-639-2545 ⌚ 8월



## 삼척, 수려한 해변에서 즐기는 스노클링과 카약 체험

### 장호해수욕장 ☎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 033-572-3011

장호해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해양스포츠 명소로 통한다. 수려한 기암절벽이 감싼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스노클링과 투명카누 등을 즐기는 맛이 일품이다. 장호항은 다양한 어종의 집산지여서 활어회가 유명하다.

### 원평해수욕장 ☎ 삼척시 근덕면 원평길 ☎ 033-572-3011

궁촌해수욕장과 이웃한 원평해수욕장은 뒤쪽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고, 해양레일 바이크가 지나간다. 솔숲에서 야영을 즐기며 물놀이하는 가족단위 피서객에게 인기가 좋다. 알려지지 않아 여름 휴가철에도 비교적 흐젓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 용화해수욕장 ☎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변길 ☎ 033-572-3011

삼척 시내에서 남쪽으로 24km쯤 떨어져 있는 용화해수욕장은 알려지지 않아 한적하다. 백사장길이 1km, 수심 1~1.5m의 자그마한 크기의 해변이 반달처럼 휘어져 있다. 뒤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해변 양쪽 끝에는 기암절벽이 어우러진다.

## 카누, 바다낚시 체험



### 갈남 어촌체험마을

에메랄드빛 해변으로 경관이 수려하며, 바다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춰 스노클링과 투명 카약을 타기에 적합하다. 무인도 바다낚시도 즐길 수 있다.

☎ 삼척시 원덕면 갈남길 49-26  
☞ www.갈남어촌체험마을.kr

## 해변 축제



### Enjoy 썸 페스티벌

삼척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삼척의 대표 여름 축제다. 버스킹, DJ파티, 불꽃쇼, 인기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 삼척시 테마타운길  
☞ 033-570-3843 ☎ 7월 말~8월 초



## 양양, 뜨거운 여름이 즐거운 서핑 메카

### 낙산해수욕장 ☎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 59 ☎ 033-670-2418

4km의 드넓은 백사장과 수려한 송림이 어우러진 양양의 대표 해수욕장이다. 설악산에서 흘러나리는 남대천이 하구에 큰 호수를 이뤄 독특한 생태계를 간직하며, 풍광도 빼어나다. 인근에 관동팔경의 하나인 낙산사가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 하조대해수욕장 ☎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안길 29 ☎ 033-670-2418

1.5km의 수려한 백사장이 펼쳐지며 기암절벽과 하조대 정자가 어우러진다. 하조대는 조선의 개국공신 하륜과 조준이 즐겨 찾은 곳이다. 정자에서 바라보는 기암절벽과 노송이 일품이며, 스카이워크가 설치된 하조대전망대도 인기다.

### 죽도해수욕장 ☎ 양양군 현남면 창리길 4 ☎ 033-670-2418

이웃한 인구해수욕장과 함께 뜨거운 서핑 붐을 일으킨 서핑 메카다. 대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죽도봉과 연결된 2km의 아담한 백사장을 품고 있다. 주변으로 무려 70여 개의 서핑숍이 몰려 있다. 카페와 클럽 등이 모인 거리를 '양리단길'이라고 부른다.

## 서핑 체험



### 죽도, 인구해수욕장

양양은 강원도 최고의 파도를 자랑하며 서퍼들이 모여 서핑문화를 확산시킨 곳이다. 깨끗한 수질과 적당한 수심, 연중 전문 서핑샵과 서핑스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초보자도 쉽게 도전 할 수 있다.

☎ 033-670-2418

## 해변 축제



### 낙산비치페스티벌

낙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양양군 대표 여름 축제다. 어린이 물놀이장과 놀이터, 초대 가수 공연, 댄스 선발대회 등 등 가족 피서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033-670-2418 ☎ 8월



## 고성, 울창한 송림과 백사장이 어우러진 천혜의 바다

### 화진포해수욕장 ☎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 033-680-3356

울창한 송림과 화진포호, 해수욕장이 어우러진 명소다. 주변 경관이 빼어나 예로부터 유명한 별장들이 많았다. 화진포의 성(김일성 별장), 이승만별장, 이기붕별장 등이 자리한다. 화진포호는 해당화가 만발해 붙여진 이름으로 동해안 최대의 자연 호수다.

### 송지호해수욕장 ☎ 고성군 죽왕면 오흐리 ☎ 033-680-3356

수만 년 동안 조개껍질과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모나즈 성분의 모래로 구성된 백사장이 펼쳐진다. 주변 송지호와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져 풍광이 빼어나고, 시설 좋은 송지호오토캠핑장이 있어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인기가 좋다.

### 삼포해수욕장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 033-680-3356

1977년 개장한 삼포해수욕장은 깨끗한 백사장, 울창한 송림을 갖췄다. 길이 800m, 폭 75m의 해변을 품고, 경사도 2~3도의 바닷가는 물 깊이가 1~2m 정도다. 해변 맞은편 바다에 떠 있는 흑도와 백도 그리고 호미섬은 낚시터로 유명하다.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 봉수대해수욕장

봉수대해수욕장은 고성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돋기 위해 개발했다. 봉수대 해변과 인근 계곡, 오토 캠핑장과 연계해 카약과 래프팅 등의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 고성군 죽왕면 오흐리 ☎ 033-680-3357

## 해변 축제



### 삼포해변 서핑축제(미드나잇 피크닉 페스티벌)

고성의 서핑 메카로 떠오른 삼포해변에서 열리는 해양 레저 축제다. 서핑을 주제로 한 서핑스쿨, 패들링 레이스 등 프로그램과 DJ BOX, 콘서트,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 033-680-3357 ☎ 7월

## 생활 속 거리 두기 여행 지침

### ① 개인 차량

자동차 손잡이 등  
소독, 개인별 손  
소독제 사용 후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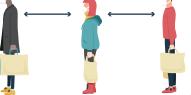
### ③ 미술관/체험

마스크 착용 후  
미술관 관람 후 체험 시 손  
소독제 및 위생 장갑 사용



### ② 고속 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문 앱 등 이용해 비대면 주문 후  
타인과 떨어진 좌석에서 식사



### ⑤ 바다/액티비티 체험

타인과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며  
바다 산책 및 사진 촬영 후 방역  
관리가 잘 되어있는 액티비티  
시설 체험

### ⑥ 전통 시장

타인과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유지하며  
물건은 손으로 만지지 말고 가급적  
눈으로 확인



### ⑦ 호텔 숙박

출입 시 발열 체크에 협조하고, 객실 창문 개폐  
가능 시 수시로 환기하며 이용



## 산행 및 야외활동을 위한 수칙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휴식
- 함성, 노래 등 침방울이 될 수 있는 행위 자제하기
- 산행, 야외활동 후 밀폐, 밀집, 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 방문 자제하기

## 등산 기본 수칙 십계명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일몰 1~2시간 전에 마친다.
- 하루 산행은 8시간이 적당하며 체력의 3할을 항상 비축한다.
- 2인 이상 등산을 하며, 일행 중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 배낭의 무게는 20kg을 넘지 않도록 한다.(체력이 약한 사람은 10kg)
- 배낭을 잘 꾸리고 손에 절대로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 등산화는 밟에 잘 맞고 튼튼한 것을 신어야 한다.
- 산행 중에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다.
- 산에서는 아는 길도 지도로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 길을 잘못 들었으면 주저 없이 되돌아간다.
- 산행 후 장비를 손질해 두고, 산행 기록을 남긴다.



山

路

海

**강원메이트**

GANGWON MATE

